

문학석사학위논문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양상 연구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복 희

문학석사학위논문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양상 연구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복 희

김복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2월 일

주 심 문학박사 김 쾌 덕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인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 연구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8
II. 규방가사와 꿈	11
1. 규방가사와 꿈	11
2.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양상.....	16
III.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실현	21
1. 꿈의 실현	21
1) 현실인식	21
2) 꿈의 양상.....	29
3) 꿈의 실현	38
2. 꿈의 미실현	44
1) 현실인식	44
2) 꿈의 양상	52
3) 꿈의 미실현	65
IV. 문학적 의의	77
V. 결 론	82

☆ 참고문헌

A Study of Dream's phase in Sin Byon Tan Sik - Type Gyubang- Gasa

Kim Bog h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Gasa in the era of Choson was a representative literature, which had been enjoyed by ancestors. The Gyubang - Gasa was a peculiar poetry where Sadaebu's women(사대부 여인) expressed their emotions and enjoyed, so it is a representative literature of women's that was called "Gasa (가사)" or "Durumary (두루마리)". Also Gyubang - Gasa expressed the state of sadaebu's women life, their regret and hope frank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having a literary value.

The era of Choson was the society of patriarchal system that had Confucian criterion, In these circumstances, for bride, the marriage didn't mean the completion of happy life. As a result, the Sadaebu's women recognized these realities so they converted the anguish of hard life into the dream.

In this paper, I suggest the dreams of Gyubang - Gasa be analyzed by the frame of "recognition of reality - dream - realization of dream".

Text contents are as flows. In Confucian system, the dream of women meant a kind of hope, accordingly these hopes were expressed by Gasa - works indirectly. Various kinds of dreams are shown in Gyubang - Gasa. For example, the dreams were the envy and yearning for men, the hope of being a new style -women, the wish for seeing separated husband and so on.

To begin with, I studied the Gyubang - Gasa that had realizations of

dream. <NochunyugaⅡ(노처녀가Ⅱ)> had the frames of recognition of reality - dream - realization of dream and the process of fulfilling dreams was very active and progressive. The foundation of these processes was that the taller had exact recognition of reality. But this work used unrealistic models and belittled value of women. This realization of dream also can be found in <Boksunhawumga(복선화음가)>. In this Gasa - work, more active and more constructive behaviors helped the attainment of hope.

After that, I considered the Gyubang - Gasa which had actual recognitions and dreams but didn't have realizations of dream. In <Yujatansikga(여자탄식가)> and <Gyumunjunhoilok(규문전회록)>, the dream of being a man appeared. The taller who was deprived of humanity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s by dreams. Also the dreams of being a new style - women were expressed in Gyubang - Gasa. In <Gyunggaesara(경계사라)>, the dream of being a man was converted into the dream of being a ideal woman. At this place, the failed dream made phase of men drop, therefore men got having the same situation as women had. Otherwise, the teller could meet missing people - a husband, parents, sibling - in dreams or the teller tried to communicate a dead husband by dreaming. This trend can be found in <Chungchungwabuga(청춘과부가)> and <Gwabuchungsanga(과부청산가)>.

In the age of civilization, women's recognition in Gyubang - Gasa meant epoch -making changes. The conflict between modern age's spirit and traditional sense of value was a sign of change that Sadaebu's women got self - realization actively. In other words, literatures help someone to have mature consciousness. Gubang - Gasa works who had dreams were just one small part of those. These dreams were far away from the reality, so the realization of dream could not be discovered.

The literature is a output that is from live experiences. Most Gyubang - Gasa deal with lamentations and dissatisfactions which Sadaebu's women felt in reality. But they didn't be discouraged, and they cherished dreams

and hopes to overcome all difficulties. And then they expressed precious dreams in Gyubang - Gasa. It isn't true that a small quantity means insignificant. These dreams were expressions of emotion that contain the hope of Sadaebu's women. Namely, it is the expression of extreme struggle.

In this paper, I analyzed Sin Byon Tan Sik - Type Gyubang - Gasa by the process of 'recognition of reality - dream - realization of dream'. Consequently, making the study of dreams in Gyubang - Gasa, we need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active behaviors and it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a property of literatur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조선시대에 시조와 함께 가사는 우리 조상들이 향유해 온 대표적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사회의 반영이며, 나아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을 표현한다. 한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이 생성된 사회적 상황과 연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규방가사는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삶의 모습과 한과 소망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방가사는 남성 중심의 엄격한 유교 관습 아래서 생활했던 사대부 여성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즐기던 독특한 시가로서 '가스' 또는 '두루마리'라는 명칭¹⁾으로 불리기도 했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문학이다. 이러한 규방가사는 '여성에 의해 창작되고 여성이 향유하는 여성 스스로의 문학이며, 여성의 생활, 현실 세계에서 고민을 내용으로 하는 4음보격의 연속체 율문'이라고²⁾ 정의된다.

조선조 사회는 유교적 윤리규범이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이런 제도 하에서 여성은 인간 평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남존여비의 굴레에 쫓겨 여필중부를 지상 계율로 삼아야 했다.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열녀 숭상과 개가 금지의 관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유린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결혼은 행복한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타의에 의한 조혼과 결혼생활의 왜곡, 사구

1)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p.9

2)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p.173.

고·봉제사·접빈객 같은 가사 노동은 구속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축첩 제도는 사대부 여성들을 독수공방과 생이별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속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여성에게 자유로운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여성들은 그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것을 규방가사로 나타냈다. 권영철은 규방가사의 내용을 21개로 분류³⁾하였다. 권영철이 분류한 것 중에서 여성의 한과 꿈을 우리글로 표현한 것이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이다. 유교적인 체제로 억압하는 사회에 대해 여성들은 규방가사를 통해서 반응과 대응의 기회를 포착했다. 그리하여 봉건 체제에서는 문학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창작과 전승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규방가사에 대한 관심은 일제시대에 학계에 처음 보고 된 이후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으나, 9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탄식의 정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가사를 쓴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남성주의적 시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규방에서만 살았던 사대부 여인들의 경험과 문학성은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사대부 여성들은 힘들었던 현실에서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

3) 권영철, 앞의 책 p.31. 권영철이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유교적인 윤리관에 입각하여 생활주변에서 소재와 주제를 찾았기 때문이고, 또 수집한 작품이 5,000필 이상으로 방대한 양 때문이었다. 1)계녀교훈류, 2)신변탄식류, 3)사친연모류, 4)상사소회류, 5)풍류소영류, 6)가문경덕류, 7)축원송도류, 8)제전애도류, 9)승지찬미류, 10)보은사덕류, 11)의인우화류, 12)노정기행류, 13)신앙권선류, 14)월령계절류, 15)노동서사류, 16)언어유희류, 17)소설내간류, 18)개화계몽류, 19)번안영사류, 20)남요완상류, 21)기타.

였다. 그러한 사정을 제쳐두고, 연구자들이 허무나 자탄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은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을 꿈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었다. 유교적인 체제에서 여성들의 꿈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불만을 표현하는 일종의 희망이었다. 여성들은 이러한 희망을 가사작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형태는 당시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되고 싶은 꿈, 신식여자가 되고 싶은 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그러한 작품세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있어 탄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표현한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대부 여인들의 자아의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현실인식 - 꿈 - 꿈의 실현이라는 모델을 적용하여, 그 꿈의 내용과 실현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인식과 꿈이 나타나는 신변탄식류 규방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꿈과 그 실현에 대해서 여성주의 시각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는 초기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양적 · 질적으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기초 자료의 수집과 정리, 유형별 연구 등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규방가사의 신변탄식류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이재수⁴⁾, 권영철⁵⁾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권영철은 오랫동안 영남 지방 일대를 답사하여 수천편의 가사를 수작 위주로 수집·정리하여 내놓은 것이 『閨房歌辭 I』, 『閨房歌辭-신변탄식류』⁶⁾로서, 그 후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규방가사의 장르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서사적 요소의 삽입 문제와 관련하여 어영하⁷⁾, 이선애⁸⁾, 서영숙⁹⁾ 등이 있다. 어영하는 서사문학성을 띤 <노처녀가>는 허구성을 지닌 작품으로 서사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이선애는 <복선화음가>가 작자의 선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계너한 내용으로 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개재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이다. 한편 서영숙은 규방가사의 문학성에 관한 미학적 특질이나 시대의식, 주제의식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시각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작품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작품연구가 여성주의 시각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개별 작품에 대하여 여성주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영숙¹⁰⁾은 ‘노처녀의 인물 묘사 부분이 판소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해학적이고 과장된 표현의 열거

4) 이재수, 「여자 자탄가 연구」, 『동양문화 연구』 2호,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5.

5) 권영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신변 탄식류 연구」, 『여성문제연구』 10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1981.

6) —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7) 어영하, 「규방가사의 서사 문학성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1973.

8) 이선애, 「<복선화음가> 연구」, 『여성문제연구』 11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

9)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전개방식 연구」,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서영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가사는 문학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둘째 여성가사는 본격적인 가사문학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연구」, 『어문연구』 제22집, 어문연구학회, 1991.

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서사적 여성가사가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개화기 규방가사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유교이념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사대부 여성이 전통적인 구속에 대한 저항과 개화물결에 대한 위기를 느낀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¹¹⁾. 개화기 여성들이 전통윤리관을 비판하면서 현실에서의 자아표출이 신변탄식류 가사로 나타난 것이다.

고순희¹²⁾는 개화기 가사문학에 여성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양상과 특성을 남성의 시각, 여성의 시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고순희¹³⁾는 윤희순의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윤희순의 의병활동은 의병의 안사람으로서 내조적 활동 성격이 강하며 주체적인 활동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병활동을 격려하며, 우리말로 의병가를 제작·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여성 경험에서 축적된 여성성의 발로이며 현실 대응력이 발휘된 것이다.

백기숙¹⁴⁾은 규방가사의 사회적 형성배경을 연구하였으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은 전통적인 유교의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능력과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는 사회의식으로 규정하였다.

또 백순철¹⁵⁾은 신변탄식류의 많은 작품들이 규방가사의 가장 극적인 의식세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하여 한탄 등의 수동적인 태도로 이해하거

11) 서영숙,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 -〈식골색씨 설은타령〉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14집, 어문연구학회, 1985.

12) 고순희, 「개화기 가사를 통해 본 여성담론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2005.

13) ———, 「윤희순의 의병가와 가사」,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나정순 외, 역락, 2002.

14) 백기숙,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5)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등은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여 균형성 문제의 접근방법을 제기하였다.

안승옥은¹⁶⁾ 조선후기 여성들도 자기 현실을 자각하고, 억압된 자기 현실을 호소하는 부정적 태도로서 자아발견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는 전통 윤리관을 비판하고 현실제도에 대한 저항을 규방가사를 통하여 표현했다고 하였다.

또 개별 작품 중에서 여성주의 시각에 의하여 <노처녀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처녀가Ⅱ>에 학계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소진률은¹⁷⁾ <노처녀가>가 민중의식과 전통의식이 서로 상충하고 화해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정착되었다고 보았으며, 그 시대 여성들이 느꼈던 성 문제와 결혼문제를 주제로 하여 꿈을 실현시킨 새로운 인식의 자각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처녀가>는 비현실적인 모델을 가지고 꿈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한 갈망의 꿈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으며, 교훈성을 언급하며 탄식가사로 보지 않고 계녀가사로 주장하였다.

고순희¹⁸⁾는 <노처녀가Ⅱ>보다 상대적으로 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노처녀가Ⅰ>을 대상으로 작품론을 연구하였다. 그는 노처녀의 작품세계는 노처녀 자신의 독자적 서정의 세계가 아니라 남성 작가가 창조해 낸 서정의 세계이며 작품에 나타난 노처녀 형상은 객관화, 대상화, 타자화된 노처녀의 형상으로, 감정의 과잉상태로 점철되어 있다고 했다.

윤지혜¹⁹⁾는 <노처녀가Ⅰ>과 <노처녀가Ⅱ>의 관련 작품을 비교, 고찰하였다. <노처녀가Ⅰ>의 주제는 봉건제도 내의 양반사회 규범에서 탈피하여

16) 안승옥, 「규방가사에 나타난 자아발견의 양상」,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7) 소진률, 「<노처녀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8) 고순희, 「<노처녀가Ⅰ>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19) 윤지혜, 「<노처녀가>의 서사 지향적 변모 양상」,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자유로운 인간 본성의 구현이라는 것이고, <노처녀가Ⅱ>에서 주제는 사회와의 갈등이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노처녀의 근대의식의 자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규방가사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언급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되는 규방가사의 특색에는 '한탄'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이정옥²⁰⁾은 규방가사에 나타난 '歎'의 표출양상을 '사유'와 '존재'의 상관관계로 고찰하였다. 또 이정옥은 양반가의 여성은 남성주의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나 양반계층에 속해 있기에 완전한 항거, 이탈은 감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내면적으로 대립요소를 표면적으로 융합하는 듯이 보이는 상반된 모순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작가의식이 표출된 것이 '歎'이라는 것이다²¹⁾.

또 이정옥²²⁾은 규방가사의 작가들은 남성 중심 사회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완전한 이탈은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순을 자각하면서도, 적극적인 저항은 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저항을 '歎'이라 부른다. 바로 이러한 '歎' 때문에 여성은 운명론으로 귀착되고, 그만큼 규방가사의 문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탄식과 비문학성, 운명론이라는 그녀의 평가는 규방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었다.

歎의 연구는 계속 이어졌는데 나정순²³⁾은 규방가사는 단순히 여성의 신세 한탄이나 읊었던 열등의 문학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바

20) 이정옥, 「내방가사에 대한 미학적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노처녀가>에서 '존재'는 나이 사십이 된 노처녀이고 '사유'는 지금이라도 출가하고자 하는 희망이다.

21)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22) 이정옥, 위의 책, p.53.

23) 나정순, 「규방가사의 문학성과 여성 인식」, 『한국 고전 시가 문학의 분석과 탐색』, 나정순, 역락, 2000, p.277.

라보았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방가사는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현실을 정면에서 직시한 것이지, 신세 한탄이나 탄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나정순의 연구는 물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낳았지만 한계 또한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에게 소외와 갈등이 있는 상황 하에서는 현실 인식의 결과로 탄식과 한숨이 나올 수 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탄식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규방가사에서 현실을 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歎'의 의미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의 시각을 살펴보면,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대하여 歎의 시각과 여성주의 시각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의 시각에 의한 깊이 있는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동안 규방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歎'의 정서와 연결하는 경향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꿈과 연결하는 시각이 없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에게 불만과 탄식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내일을 개척하기 위한 꿈을 꾸었으며, 그것을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의 연구 방법은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를 대상으로 여성주의 시각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사용하는 가사작품의 인용은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고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작품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서지적 연구는 본고의 주제가 아니어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적인 배경은 무시할 수 없

는 상황이므로 그것과 연관지어 여성주의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의 여러 양상을 체계화하는 방법으로서 꿈과 관련하여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의 틀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선행 연구자들의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한탄의 정서가 흐른다고 하여 한 쪽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는 한탄으로만 끝나지 않은 작품이 다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조 사대부 여인들에게 탄식의 정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사작품에 나타난 꿈이 현실인식과 꿈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꿈의 실현과 관련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의 주된 대상은 권영철이 편집한 『규방가사 I』²⁴⁾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하되, 『한국고전시가선』²⁵⁾을 부자료로 선택하기로 한다. 이 규방 가사 자료집에 실려 있는 계녀가류와 신변탄식류, 상사소회류 중에서 꿈과 현실인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연구 목표로 하고 있는 꿈과 꿈의 실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고전시가선』²⁶⁾에 나오는 <노처녀가II>를 연구 대상에 넣었다. 그리하여 Ⅲ장 1절에서는 <노처녀가II> <복선화음가>를 분석하고, Ⅲ장 2절에서는 <여자탄식가> <경계사라> <형제소회가> <화전가> <추풍감별곡> <청춘과부가> <과부청산가> <규문전회록>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품을 대상으로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이라는 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은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Ⅱ장에서는 규방가사의 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함께 규방가사 작품에 나타나는 꿈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 1절에서는 '현실 인식 - 꿈 -

24) 권영철, 앞의 책, 1979. 이 책에는 총113편의 가사작품이 실려 있다.

25) 임형택 외, 『한국고전시가선』, 창작과 비평사, 1997.

26) 임형택 외, 위의 책.

꿈의 실현'이라는 3요소가 나오는 작품을 대상으로 꿈의 실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Ⅲ장 2절에서는 '현실 인식 - 꿈'은 있지만 '꿈의 미실현'이 드러나는 작품을 중심으로, 좌절된 꿈은 화자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연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조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있는 규방가사들의 문학적 의의도 짚어보고자 한다.

II. 규방가사와 꿈

1. 규방가사와 꿈

인간에게 '꿈'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꿈이 없는 인간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미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꿈의 사전적 정의에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의 좁은 의미와 함께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이라는 넓은 의미도 있다.

넓은 의미의 꿈이든 좁은 의미의 꿈이든,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은 그들의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규방가사에 그들의 꿈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꿈은 깨어 있는 낮의 일상 공간에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의 산물²⁷⁾인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꿈에는 좁은 의미의 꿈도 대상에 넣었다. 그것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희망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꿈에 대한 인식은 원시시대에서부터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꿈을 이해하고 풀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람은 프로이트²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 꿈은, 지각능력이 공상의 산물을 마치 감각적 작용인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과 꿈의 상관관계를 무시해 버릴 수

27) 김혜니, 『외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제』, 푸른사상, 2005, p.147.

28) 서석연 역,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범우사, 1999, p.82.

없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꿈은 현재 의식의 상황을 보충하는 것들이다. 융²⁹⁾은 꿈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의식에 대한 '보상기능'이라고 한다. 규방가사에 나타는 꿈들은 현실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수정하려는 무의식의 보상기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대부 여성들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작품분석을 위해 철학자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³⁰⁾을 원용하려고 한다. 그는 '지각'과 '상상', '상상을 통해 얻는 자유'를 통하여 상상력을 설명하고 있다. '지각'은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정체를 관찰하는 과정이다. '상상'은 눈앞에 없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각만 있고 상상이 없는 경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된다³¹⁾. 하지만 지각을 거쳐 상상을 하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한 자유는 현재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낳게 해 준다³²⁾.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은 '지각 - 상상 - 자유'로 정리된다. 이러한 틀을 확대 팽창시키면 '현실인식 - 꿈 - 꿈의 실현'이 된다. 지각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이지만, 현실 인식은 현재 전체의 포착이다. 상상은 하나의 사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지만, 꿈은 현실 전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다. 하지만

29) 이부영, 『분석심리학,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1998, p.188.

30) 김정린, 「사르트르의 이미지 혹은 상상하는 의식」,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김현, 김치수 편, 문학과지성사, 1989, p.263. 눈 앞에 있는 의자를 지각하는 경우, 이 지각하는 의식의 대상은 의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상상하게 될 때 이 상상하는 의식의 대상 역시 이 의자이다. 이처럼 지각하는 경우나 상상하는 경우, 그 대상이 개성과 형상을 가진 초월적 사물이라는 점에서 두 의식은 같다. 차이점은, 각각의 이 초월적 대상과 맺는 관계에 있다. 즉 지각은 대상과 직접 만나지만, 상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31) 김정린, 위의 책, p.269. 상상할 수 없는 의식은 존재하는 것들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존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32) 김정린, 위의 책, p.269. 상상하는 의식은 부재하는 대상을 지향함으로써 현실과 거리를 두고, 현실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식이다.

상상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은, 꿈이 실현되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므로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을 확대 팽창하여 만들어 낸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이라는 틀은 하나의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다. 첫 단계로서 사르트르 이론의 인식에 대응되는 현실 인식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데서 모든 인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현실 인식을 통해 파악된 지금 여기의 상황은 하나의 원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규방 가사 작가의 인간으로서의, 작가로서의 삶이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이다. 규방 가사에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점은 규방 가사의 문학성을 올리는 훌륭한 초석이 된다.

그렇다면 규방 가사에서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통해 파악된 현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성들의 현실 인식은 남성 중심의 유교적 관습의 폭압 아래서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활동을 통하여 인간성을 완성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었다. 깊은 규방 속에 유배당한 여성에게는 어떠한 인간적인 가치도 실현하는 것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결국 규방 가사의 작가들은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처녀가 II>의 화자는 혼인하지 못한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고, <여자탄식가>의 화자는 왜곡된 여자의 삶의 모순을 직시하고 있었고, <청춘과 부가>의 화자는 남편과 사별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있었다. 규방 가사의 작가들이 현실의 문제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다.

본고의 모델이 된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에서는, 지각만 있고 상상이 없으면 현재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³³⁾

이를 응용하여 보면, 현실 인식만 있고 꿈이 없으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사르트르에게서 영감을 받아 본 고에서 현실 인식은 지금 여기라는 현실의 원 내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상정한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닫힌 원의 외부를 보여주는 장치를 사르트르 이론의 상상을 변형하여 꿈이라 부르려고 한다. 그래서 규방 가사에서 꿈의 역할은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려는 시도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규방 가사의 작품에 드러나는 현실 인식은 매우 정확했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점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규방 가사의 작가들은 남성 중심의 유교 관습 아래서 강요된 비인간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규방 가사의 작품에 현실 인식은 있지만, 꿈이 없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 경우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그 이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 인식은 있어도 꿈이 없는 경우에는, 인간은 현실이라는 원의 내부에 철저하게 갇혀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노처녀가Ⅱ>에 현실 인식은 있어도 꿈이 없었더라면, 화자는 문제 많은 현재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만 했지 감히 이를 해결할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여자탄식가>에 현실 인식은 있어도 꿈이 없었더라면, 여자를 숙명으로 여기고 남자를 선망하기만 하지 감히 남자 바로보기를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청춘과부가>에 현실 인식은 있어도 꿈이 없었더라면,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만 있지 혼란스러운 세계에 대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의 고리를 세우려는 철학적인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규방 가사의 작품에 현실 인식은 있어도 꿈이 없었더라면, 현실이 주는 고통은 알아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감히 시도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꿈은 현실 세계라는 닫힌 원의 외부를 보여준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에

33) 김정린, 위의 책, p.269.

는 없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실 인식을 통해 파악한 현재 세계에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노처녀가Ⅱ>에서 꿈은 쇠침점과 꿈속의 혼인, 홍두깨와의 모의 혼인이고, <여자탄식가>에서 꿈은 남성 선망이고, <청춘과부가>에서 꿈은 전생의 해명으로 드러난 혼란스러운 이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이해이다.

규방 가사에 나타나는 꿈의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다. 규방 가사 작품에 나타나는 꿈은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소박한 소망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을 뒤집고 싶어 하는 안타까운 후회일 수도 있고, 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원일 수도 있고, 즐거움과 후회 속에 빠져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일 수 있고, 어떤 식이든 이루고 싶은 강렬한 소원일 수도 있다.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을 확대 팽창시켰을 때, 그의 '상상을 통해 얻은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 꿈의 실현이다. 사르트르의 이론에서 상상을 통해 얻는 자유는, 현재 없는 대상을 추구한 결과 얻어지는 부정의 산물이다.³⁴⁾ 현실 인식이 현재라는 원의 내부를 보여 준다면, 꿈은 현재라는 원 외부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꿈의 실현은 꿈의 세계에서 본 것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이루어진다. 꿈의 세계에서 본 새로운 가능성을 적절한 행동으로 옮길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처녀가Ⅱ>에서 화자는 세 개의 꿈에서 본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꿈의 실현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이 이루어지면 이전의 현실은 변화하여 새로운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꿈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이라는 원의 외부에 있던 상황이 새로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노처녀가Ⅱ>에서 처음의 현실이 노처녀였다면, 꿈의 실현 이후의 새로운 현실은 부부가 되는 것과 같다. 꿈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상황에 변화가

34) 김정린, 위의 책, p.269. 상상하는 의식은 부재하는 대상을 지향함으로써 현실과 거리를 두고, 현실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식이다.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쌓이면 사회와 역사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꿈이 실현되면서 개인의 변화가 초래되고 개인의 변화가 사회와 역사의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규방 가사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한 꿈의 실현 과정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의 실현 과정이라는 점도 감동적이다. 규방 가사에 나타나는 것은, 소극적인 한탄과 현실 안주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규방 가사의 문학성을 높이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선화음가>에 드러나는 꿈의 실현 과정은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있어 과히 역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방 가사 작품에서 현실 인식과 꿈은 있어도, 꿈의 실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자탄식가>에서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춘과부가>에서 전생의 해명을 통한 세계의 인과론적 이해는 화자의 현실에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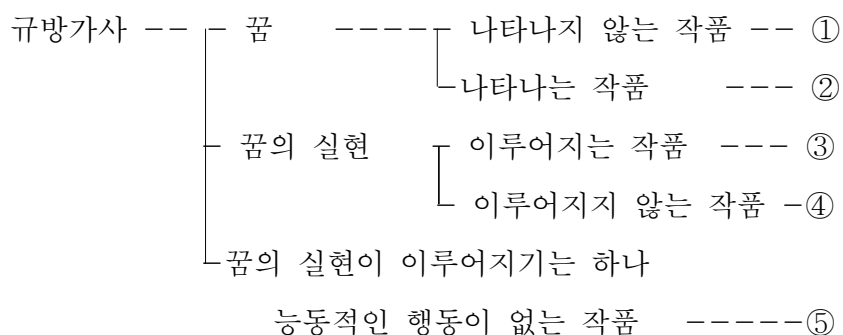
이처럼 행동을 통한 현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남성 중심의 유교 관습 아래서 여성의 인간적인 가치 실현이 철저하게 봉쇄당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성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능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꿈은 현실의 이면을 보여준다. 꿈을 통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규방 가사의 작가는 현실 외의 또 다른 가능성을 항상 알고 있고, 그럼으로써 현실 세계 속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양상

규방 가사에 나타나는 ‘꿈’은 내용도 기능도 매우 다양하다. 꿈은 현재

의식의 상황으로 잠재된 꿈의 내용이 꿈 작업을 통하여 배열되어 나타난다.³⁵⁾ 그런데 꿈은 각자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실과 '꿈'의 거리에 따라 꿈의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실과 꿈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경우와 현실과 꿈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이다. 그리고 현실과 꿈의 거리가 중간 정도인 경우이다. 전자는 꿈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다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후자는 능동적인 노력으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간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다. 그런데 그 꿈은 실현이 가능한 꿈도 있을 수 있고, 실현이 불가능한 꿈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의 대체적인 경향은 '歎'의 정서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도 꿈이 있었고, 또 꿈의 실현이 나타나는 작품도 있었다.

다음에는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꿈과 꿈의 실현이 미약하게나마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을 분류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①항에 해당하는 작품은, 종속만을 강조하는 유교적 · 교훈적인 내용의 대부분의 가사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작품에는 정확한 현실인식은

35) 이부영, 앞의 책, p191.

있지만 대개 '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권영철이 '전형 계녀가'³⁶⁾라고 부른 <계여가>이다.

급한일 안이들낭 밤으로 왕늑말고
나무집 가구들낭 더욱조심 하여서라

<계여가> P.19

이러한 <계여가>에는 시집간 여자가 시댁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관습법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화자의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꿈'이라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사의 화자는 현실의 외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철저히 갇혀 있는 것이다.

②항에 속하는 작품인 <화전가>에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보고 싶어 하는 안타까운 소원이 드러난다.

쉽지않는 우리모듬 가는해가 아깝도다
양유청자 가는실에 가는해를 매여볼까

<화전가>① p.281

화자는 화전 놀이를 와서 하루를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다가 어느 새 놀이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시적화자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힘겨운 노동으로 신음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기저로 한 꿈이 서산으로 지고 있는 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꿈은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6) 권영철, 앞의 책, 1979, p.14.

오날나며 놀자흐니 옛친구가 몇업구나
반겨흐든 그청춘이 슬허가는 청춘일식

<청년 자탄가> p.103

이 가사의 화자는 노인이다. 새봄이 돌아와 자연은 노래하지만,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처지는 오히려 처량함이 깊어만 갈 뿐이다. 화자는 꿈을 이용하여 현실을 떠나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의 청춘은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가득 차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과거와 선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쓸쓸함을 더하고 있다. 추억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감미로울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년기에 청춘을 회상하는 꿈은 일류의 보편적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작품 또한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남자신니 도얏드면 우리가손 우리도송
우리가 츠질흐고 우리곳 머물거실

<思親歌> p.173

이 작품에서 시적화자는 친정에서 고이고이 자라나서, 시집을 와서 보니 시집살이는 더욱 어설프다. 시부모님의 자애는 태산 같으나, 모든 것이 서투른 시집살이에 부모님과 고향은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다. 화자는 남자가 되었더라면 하는 소망을 통해 부모와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다. 그럼에도 이 꿈은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③항과 ④항은 Ⅲ장 1절과 Ⅲ장 2절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므로, 본항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⑤항에 해당하는 <상사곡>이 앞에서 살펴본 작품과 다른 점은 꿈의 실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앗침거무 줄을타고 지역가치 우지진다
이거시 상식으로다 조은소식 들어세며

<상사곡> p.228

지금, 남편을 멀리 변방 수자리터로 보낸 화자에게 있어 현실은 '생이별'이다. 그녀는 이별한 낭군을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느님과 옥황상제에게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재회를 기원하는 기도를 '꿈'이라고 본다. 어느 날, 꿈에 그리던 낭군이 아침 거미와 까치를 상서로운 징조로 삼아 돌아온다. 그런데 이 규방 가사에 드러나는 꿈의 성취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작품 화자의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꿈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외적요소로 인해 꿈이 이루어지고 화자는 단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규방가사에서는 나타나는 꿈은 대부분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만과 소망을 꿈으로 나타내었다. 그 꿈은 남자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 신식여자가 되고픈 소망, 헤어진 남편을 만나고 싶은 바람 등 대다수 사대부 여인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감정이 화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품 속에 표출된 것이다.

Ⅲ.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실현

1. 꿈의 실현

규방가사는 주로 규방에서 부녀자들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전통적인 유교윤리에 의해 교육받은 사대부여성들은 현실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불만들을 화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주로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대부 여인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욕망들을 꿈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꿈은 현실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상기능³⁷⁾으로써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방가사에서 현실인식은 나타나고 있으나 꿈과 그 실현은 미약한 편이다. 그런데도 몇몇 작품에서 꿈의 실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노처녀가Ⅱ> <복선화음가>를 들 수 있다.

<노처녀가Ⅱ> <복선화음가>에서 시적화자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기저로 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꿈을 실현하였다.

1) 현실인식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이라는 3요소를 모두 갖춘 대표적인 작품이 <노처녀가Ⅱ>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37) 이부영, 앞의 책, p.189.

어와 내 몸이여 쏘고도 분한지고 이 설움 어이하리
 인간만사 설운 중에 이내 설움 같을쏜가
 설운 말 하자 하니 부끄럽기 측량없고
 분한 말 하자 하니 가슴 답답 그 뉘 알리
 남 모르는 이런 설움 천지간에 또 있는가
 밥이 없어 설워할까 옷이 없어 설워하까

<노처녀가Ⅱ> p.184

화자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는 말은 '설움'이다.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서러움을 가진 사람이라며, 가슴을 치고 있다. 하지만 화자의 그 커다란 서러움의 원인은 결코 '밥'이나 '옷'은 아니다. 밥이나 옷이 문제라면, 현실인식은 개인의 운명보다 사회 역사적 상황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화자의 서러움은 이러한 사회 역사적 난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커다란 서러움을 겪고 있다는 화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 나이를 헤어보니
 오십줄에 들었구나 먼저는 우리 형님
 십구세에 시집가고 셋째의 아우님은
 이십에 서방 맞아 태평으로 지내는데
 불쌍한 이 내 몸은 어찌 그리 이러한고
 어느덧 늙어지고 츠름꾼이 되었구나

<노처녀가Ⅱ> p.184-5

시적 화자의 현실을 측은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녀가 나이 50줄에 들어선 '노처녀'라는 데 있다. 처녀 나이가 50이라면 당시나 지금이나 결혼하기가 이미 늦은 나이다. 게다가 언니 뿐만 아니라 동생도 이 노처녀보다 먼저 시집을 갔다. 이 가사가 만들어져 애송되던 조선시대 후기에는 유교적 윤리규범을 중시하고 특히 남성중심의 남녀유별이 지배적인 사회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여자에겐 결혼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적 화자에게 나이 50줄의 노처녀라는 현실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풀어야하는 숙제였다. 그런데 화자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옛적에 한 여자 있으되 일신이 갖은 병신이라
나이 사십이 넘도록 출가치 못하여
그저 처녀로 있으니 옥빈홍안이 스스로 늙어가고

〈노처녀가Ⅱ〉 p.184

이 노처녀는 '병신'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나이는 '이미 오십 줄에 들었고 얼굴은 엷었으며, 한쪽 눈, 한쪽 귀, 한쪽 손, 한 다리가 성치 못한 병신'³⁸⁾이다. 따라서 화자의 현실 인식은 '노처녀 - 병신'이라는 두 항목으로 요약된다. 바로 여기서 끝없는 탄식과 한탄이 나온다.

손님 보기 부끄럽고 일가 보기 더욱 싫다
이 신세를 어이할꼬 살고 싶은 뜻이 없네
간수 먹고 죽자 한들 목이 쓰려 어찌 먹고
비상 먹고 죽자한들 내음새를 어찌할꼬

38)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p.155.

부모유체 난처하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빈 방 중에 혼자 앉아 온가지로 생각하나

.....

곤충도 짝이 있고 금수도 자웅 있고
헌쥬신도 짝이 있어 음양의 배합법을

<노처녀가Ⅱ> p.188-9

불구의 노처녀는 가슴을 두드리며 답답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한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불쌍하다고 하는 말은 더욱 듣기 싫다. 그런 답답함이 극에 달하면, '간수 먹고' 자살할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야말로 간수 먹고 죽자하니 목이 쓰릴 것 같고, 비상 먹고 죽으려고 해도 냄새가 지독해서 어떻게 넘기나. 또 내가 죽고나면 체면만 생각하는 좀 양반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한없는 고뇌와 체념의 자세를 읊조리고'³⁹⁾ 있는 것이다. '병신'에 '노처녀'라는 가혹한 현실에서 나온 필연적인 한탄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사의 주인공에게는 전혀 다른 면모가 있다.

내 얼굴 병신이나 남과 같이 못할쏘나
내 얼굴 엷다 마소 엷은 궁게 슬기 들고
내 얼굴 검다 마소 분칠하면 아니 훨까
한편 눈이 멀었으나 한편 눈은 밝아 있네
바늘 귀를 능히 꿰니 보선 볼을 못 박으며
귀먹다 나무라나 크게 하면 알아듣고
천둥소리 능히 듣네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하여 무엇할꼬

39) 윤선희, 「노처녀가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P.16.

원편 다리 병신이나 뒷간 출입 능히 하고

.....

시속 행실 으뜸이니 내 본시 총명기로
무른 노릇 못할쏘냐 기억자나 나나자를
십년 만에 깨쳐내여 효행록 열녀전을

.....

행실 자랑 이만 하고 재조 자랑 들어 보소
도포 짓는 수품 알고
홀웃이며 핫웃이며 누비 상침 모를쏜가

.....

슬기가 이만하고 재조가 이만하면
음식 숙설 못할쏜가

<노처녀가Ⅱ> p.185-7

노처녀는 육체적 불구를 비관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녀는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즉 그녀에게 육체적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견해와 정반대로 이 화자는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을 내세운다. 총명하고 행실이 바르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으며, 음식 숙설도 잘 하고 봉제사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 50줄의 '병신 - 노처녀'라는 상황은 노처녀의 현실이다. 서영숙의 평가대로 이 노처녀가 '매우 긍정적이고 과감한 성격'⁴⁰⁾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노처녀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가지는 미의식의 기준을 과감히 깨뜨리고, 여성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근대사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노처녀는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성상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혼인을 지연시키는 요

40) 서영숙, 앞의 책, 2003, p.155-6.

인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미모에 대한 잘못된 여성상에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⁴¹⁾ 또한, 가사의 독자는 이러한 재주 자량을 통해 합리화를 드러내는 해학적 언어에서 불쌍하다는 '동정보다는苦笑'⁴²⁾를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노처녀가Ⅱ>의 작가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노처녀를 지나치게 형상화, 대상화⁴³⁾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처녀가Ⅱ>에서 노처녀의 현실 인식에는 상반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노처녀 - 병신'이라는 가혹한 현재 상황이다. 둘째는 남만큼 할 수 있고, 오히려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다. 두 선택지 중 어느 것이 우세한가에 따라 노처녀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자신감이 일시적인 마음가짐으로 끝나고, 불구의 노처녀라는 현실이 압도하면, 그녀는 꿈도 꿀 수 없는 장애인으로 남을 것이다. 반대로 강한 자신감으로 가혹한 현실에 도전하면, 노처녀의 현재 상황도 변화하고 세계도 변화할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 '노처녀 - 병신'이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가사의 주인공은 미래의 행동을 결심했음을 읽을 수 있다.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할쏜가
 부모동생 믿다가는 서방맞이 망연하다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면
 중매파를 불러다가 기운 조작으로 표차로이
 구혼하면 어찌 아니 못될쏜가
 이처로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내 서방 내가 같히지 남다러 부탁할까

41) 서영숙, 앞의 책, 1996, P.137.

42) 윤지혜, 「노처녀가의 서사 지향적 변모 양상」,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43) 고순희, 앞의 책, p.184.

내 어찌 미련하여 이 의사를 못 냈던고

<노처녀가Ⅱ> p.189-190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이다. 화자에게는 불구와 미혼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노처녀가Ⅱ>의 주인공은 미혼이라는 문제 해결에 온힘을 기울이고, 따라서 그녀에게 육체적 결함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화자가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노처녀' 상황을 종결시켜 주는 '서방맞이'이다. 그녀는 혼사 문제의 해결을 부모나 동생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집가기 전에 여자는 부모의 처사에 순종해야 하고, 혼인은 부귀빈천이나 문벌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사회 규범이었다.⁴⁴⁾ 따라서 자식의 혼사는 부모의 일이었다. 더욱이 자유연애나 자유결혼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고, 매파가 이 쪽 저 쪽을 드나들며 부모의 의중을 떠보며 양쪽 집을 연결하여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 매파는 혼인의 문제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다.

노처녀는 사랑에 손님이 온 기척만 느껴도 혹시나 매파가 왔나 기대해 보기도 하면서 혼자서 가슴만 바짝바짝 태우고 있었다. 결국 노처녀는 남을 믿다가는 영영 시집이라는 것을 못 갈 것 같은 예감을 느끼고, 사회적 통념과 반대로 자신이 혼인 문제에서 전면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한다. 이러한 면모 때문에 서영숙은 화자를 과감하고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다⁴⁵⁾. 조선시대 유교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시집살이의 고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작품의 화자에게는 그러한 시집살이가 꿈이요 희망이었던 것이다.

44) 서영숙, 앞의 책, P.156-7.

45) 서영숙, 앞의 책, p.156. 그 근거로, 자신의 혼사를 부모나 동생에게 맡겨두지 않는 것, 쇠침점을 치고 꿈 속 혼인을 성취하는 것, 홍두깨로 모의 결혼식을 하는 것을 든다.

이와 반대로 시적 화자가 시집을 간 <복선화음가>에 있어 현실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삼일을 지닌후이 세수작직 예법으로
부역으로 니러가니 소슬한 혼부역이
탕관하나 쏜이로다

하인을 급히불너 이웃집이 보냈드니
도라와 하난말이 전의쑤쌀 아니주고
염치업이 쏘왔나냐 두말말고 밧비가라

<복선화음가>p.29-30

이 가사에서 이씨 부인은 명문 가문에서 곱게 자라서 출가하고 보니 시댁의 가문은 명문이나, 빈한하기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혼수를 팔고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살림을 꾸려가지만 세 끼 밥도 챙겨 먹기 어려운 형편이다. 양식이 없어 이웃집에 하인을 보냈더니, 그 집에서는 전에 쑤쌀도 갚지 않고 또 왔냐고 면박을 주며 돌려보낸다. 이러한 것은 박인로의 <누항사>⁴⁶⁾에서 이웃집에 소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큰기침하고 물러나오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누항사>에서 주인공이 '안빈낙도'하겠다며 체념하는 데 비해 이 작품에서 화자는 굶은 일도 마다 않고 현실에서의 삶을 가다듬는다.⁴⁷⁾ 여기서 시적 화자의 현실인식은 지독한 가난이다.

<노처녀가II>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50줄의 나이에도 혼인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현실 인식은 '노처녀 - 병신'이

46) 박인로, <누항사>, 앞의 책, 임형택 외, p.174-5.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이 닫은 문밖에 어둑히 혼자서서/...../ 설피설피 물러오니'

47) 서영숙, 앞의 책, 2003. p.259.

라는 도식으로 정리된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화자는 탄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 작품의 시적화자는 문제 많은 현실 속에 갇혀 있지만은 않았다. 다시 말하여 그녀는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2) 꿈의 양상

(1) 결혼 - <노처녀가Ⅱ>

인간의 삶에서 현실 인식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정보의 틀을 제공해 준다. 현실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인식 그 자체만으로 지금의 현실을 초월할 수는 없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이루어진 후, 현실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것을 비판한다. 현재를 수용하든 비판하든 간에, 단순히 현실 인식만으로 지금의 나와 세계를 넘어설 수 없다. 현실 인식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여주지만 할 뿐이다.

현실 인식이 제시해 주는 범위는 현재 상황이라는 닫힌 원의 내부뿐이다. 그래서 현실 인식 이외의 것이 없으면 인간은 현재의 세계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꿈은 이러한 현실 세계에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닫힌 원으로 표상할 수 있는 현재 세계의 바깥이 바로 꿈이다. 현실의 외부에서 자리하고 있는 새로움의 세계가 바로 꿈이다. 그래서 인간이 현재 세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꿈이 필요한 것이다. 꿈이 있어야 인간은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그 꿈은

행동의 가능성을 탐색해 주기 때문이다.

<노처녀가Ⅱ>에서 '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곳은 세 부분이 있다⁴⁸⁾. 먼저 쇠침점을 하는 부분을 화자의 '꿈'으로 볼 수 있다.

내 팔자에 타인 서방 어떤 사람 뭇에 질꼬
쇠침이나 하여 보세 알고지고 알고지고
어서 바빠 알고지고 내 서방이 늬가 되며
내 낭군이 늬가 될까 천정배필(天定配匹) 있었으면
제라서 마다한들 내 고집 내 억지로
우김성에 아니 들까 소문에도 들었으니

.....

수망(首望)에는 김도령이오 부망(副望)에는 권수재라

<노처녀가Ⅱ> p.190-1

<노처녀가Ⅱ>에서 화자의 현재 상황은 '노처녀 - 병신'으로 요약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현실 인식의 결과, 화자에게 부족한 것은 '배우자 - 육체적 정상 상태'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육체적 불구보다 혼사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한다는 것도 앞에서 살펴보았다. 혼인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필을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배필을 정하는 일은 아버지나 가문의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이 당시의 사회 규범이었다.

그런데 이 가사의 화자는 쇠침점을 통해서 '천정배필'을 알아내려고 한다. 쇠침점을 통해 미래의 낭군을 알아내는 과정을 '꿈'이라고 볼 수 있는가. 화자의 현재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 '노처녀'이고 배우자는 현실을 규정하는 닫힌 원의 외부에 있다. 다시 말해 '신랑'은 현재의 세계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세계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쇠침점을

48) 3가지 꿈은 쇠침점 보기, 꿈 속의 혼인 장면, 흥두깨와 모의 결혼이다.

통해 배우자를 알아내는 과정을 '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흔들흔들 높이 흔들여 쇠침 하나를 빼어내니

수망 치던 김도령이 첫가락에 나단 말가

얼씨고 좋을시고 이야 아니 무던하나

평생 소원 이뤘구나 옳다 옳다 내 이제는

<노처녀가Ⅱ> p.191

쇠침점을 쳐 보니, 수망으로 치던 김도령이 그녀의 낭군감으로 나왔다. 김도령은 동갑 나이에 '인물이 좋아' 신랑감 후보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던 인물이다. 그런 김도령이 신랑감으로 나오자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이미 결혼한 형님과 아우가 더 이상 부럽지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쇠침점을 통해 천정배필이 드러났다고 해도, 현실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현실은 여전히 '노처녀- 병신'이다. 김도령이라는 신랑감은 현실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꿈'의 세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꿈의 세계를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꿈의 세계는 '노처녀'에게 '신랑감'을 보여준다. 꿈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꿈의 세계는 현실을 감싸고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그 꿈의 세계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따라 행동 하면 꿈이 실현되면서 자신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세계도 변화한다. 하지만 꿈이 실현되기 전에 아직 꾸어야 할 꿈들이 남아있다.

정신을 진정하니 잠깐 사이 잠이 온다.

평생에 맺힌 인연 오늘밤 춘몽중(春夢中)에

혼인이 되었구나

.....

문전이 요란하며 신랑을 맞아들 제
 위의도 거룩하다
 차일 밑에 전안(奠雁)하고 초례하로 들어올제
 내 몸을 굽어 보니 어이 그리 잘났던고
 큰머리 떠는 잠에 준주투심 갖추오고

 초례교배 마친 후에 동뢰연 합환주로
 백년 기약 더욱 좋다.

〈노처녀가Ⅱ〉 p.191-2

두 번째 꿈은 실제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꿈이다. 꿈속에서 화자는 천정
 배필 김 도령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가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결혼
 식이 거행됐다. 꿈속에서 '용문대단 활옷'을 입은 화려한 신부와 거룩한 신
 랑은 초례교배를 하고, 합환주를 마시며 백년기약을 한다. 쇠침점이라는 '
 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배필이 김 도령이라는 것뿐이다. 배필이 누구인
 지 알았다고 해서 '노처녀'라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이것이 바로 쇠침점을 치는 꿈의 한계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그 다음에 김 도령과 혼례를 올리는 '꿈'이 이어지는 것이다.

쇠침점에서 배필을 알고 꿈에서 실제 결혼 장면을 보았다면, 화자가 현
 재의 '노처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끝낸 셈이다. 화자가 현재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꿈속에서 본 것을 실행하면 된다. 꿈속에서
 본 대로 행동하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다. 꿈은 가능한 행동의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가 꿈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 때문이다.

결혼식 장면의 꿈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내 몸을 굽어보니 어이
 그리 잘났던고'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의 표면적인 의미는 혼례를 하기 위
 해 갖가지 치장을 한 신부가 매우 화사하고 아름답다는 뜻일 것이다. 여기

서 필자는 이 구절을 서정시처럼 확대 해석해 보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 속에서 화자의 현실은 '노처녀 - 병신'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혼례를 올리는 꿈속에서 노처녀는 육체적 결함이 사라진 상태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보면, 꿈속에서 화자는 이제 노처녀도 아니고 불구도 아니다. 이러한 꿈이 실현되면 정말로 화자는 노처녀도 아니고 병신도 아닐 것이다.

인연을 못 일우고 개소리에 놀라 깨니
 침상일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여 섬거이 앉아 보니
 등불은 희미하고 월색만 만정한데
 원근 계명성은 새벽을 재촉하고
 창밖에 개 소리는 단잠을 깨는구나
 아까울사 이 내 꿈 어찌 다시 얻어보리

<노처녀가Ⅱ> p.192

천정배필 김도령과 결혼하는 꿈은 달콤하고 감미로울 것이다. 꿈속에서 화자는 노처녀도 아니고 병신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꿈을 개 소리 때문에 깨고 말았다. 그녀는 개를 원망하면서 단꿈을 안타까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개 때문에 끝난 이 꿈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화자는 이 꿈을 끝까지 꾸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연을 못 일우고'라는 구절에서 꿈속의 결혼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꿈속의 결혼 장면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친척들이 모이고⁴⁹⁾, 신랑이 오고⁵⁰⁾, 맞절을 하고, 그리고 합환주를 마시는 것⁵¹⁾'으로 끝난다. 결국 혼인하는 꿈

49) '형님이며 아주미며 아우년 조카불이 / 긴담장 자른 담장 거룩하게 모였으니'

50) '문전이 요란하며 신랑을 맞아들 제'

은 미완성의 꿈이다. 개 소리 때문에 꿈의 중간 부분에서 중지된 꿈이다.

이 가사의 끝부분과 상식을 동원하여 미완성의 꿈을 후반부를 상상해 보면, 이렇게 될 것이리라. '신방에 들고, 자식을 낳고, 부귀공명을 얻는다.' 그러나 비록 중간에 중단된 꿈이라도 화자는 꿈의 기능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아까울사 이내 꿈을 어찌 다시 얻어보리
꿈을 상시 삼고 그 모양 상시 삼아
혼인이 되려무나

<노처녀가Ⅱ> p.192

현실 인식이 보여주는 세계는 원으로 표상되는 닫힌 세계로, 오직 원 내부의 세계만을 보여줄 뿐이다. 꿈의 세계는 현실 인식을 넘어서는 원 외부의 새로운 세계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두 세계를 연결해 줄 다리가 꼭 필요하다. 꿈의 이미지대로 행동을 준비하면 꿈이 실현되면서 현실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 가사의 화자는 혼인하는 꿈을 '상서로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만약 그 꿈을 평범하고 무의미한 꿈으로 받아들이면 꿈의 이미지는 무시되고 망각된다. 그러한 경우 꿈의 세계가 보여주는 현실 변화의 힘은 사라지며 현실의 닫힌 범주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노처녀가Ⅱ>의 화자는 혼인하는 꿈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한다. 그 꿈의 이미지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혼인이 되려무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혼인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대신 '혼인이 되려무나'라고 말했다는 것

51) '동퇴연 합환주로'

이다.

이 가사에서 '내 서방 내 갇히지 남다려 부탁할까'⁵²⁾ 라는 부분은, 당시의 사회 현실로 볼 때, 파격적일 정도로 능동적이다.⁵³⁾ 그런 적극적인 능동성이 이 구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혼인이 되려무나'라는 말 속에는, 혼인의 주체가 아버지나 김도령과 그 중간의 매파이고 정작 본인은 방관자이다. 하지만 당대의 사회 관습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수동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⁵⁴⁾. 그렇지만 화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노처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 가지 꿈이 더 필요하다.

남이 알까 부끄리나 안 슬플 일 하여보자
홍두께에 자를 매어 갓 씌우고 옷 입히니
사람 모양 거의 같다 쓰다듬어 세워놓고
새 저고리긴 치마를 호기 입게 떨쳐 입고
머리 위에 팔을 뜨려 제법으로 절을 하니
눈물이 종행하여 입은 치마 다 적시고
한숨이 복발하여 곡성이 날 듯하다

〈노처녀가Ⅱ〉 p.193

홍두께를 신랑으로 분장시키고, 화자는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다시 한다. 이 구절에서 보이는 것은 일종의 결혼식 예행연습인데, 서영숙은 이를 〈모의 혼인식〉⁵⁵⁾이라 한다. 이 구절에 드러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

52) 임형택 외, 앞의 책, 〈노처녀가Ⅱ〉

53) 서영숙, 앞의 책, p.154.

54) 당대에는 결혼 문제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부가 될 두 남녀가 아니라, 양가의 부모와 매파 등 주위 어른들이었다.

55) 서영숙, 앞의 책, p.156.

질 결혼식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동의한다. 윤지혜는 “자신의 혼인을 스스로 치러본다”⁵⁶⁾라고 말하면서, 꿈으로서의 기능은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가상 혼인을, 일종의 '꿈'이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자는 쇠침점을 치는 꿈과 혼인하는 꿈이라는 두 개의 꿈을 이미 꾸었는데도 모자라는 것인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 소리로 인하여 꿈속의 혼인이 중간에 중단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두 개의 꿈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꿈속의 혼인이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꿈이 더 필요하다. 첫째 꿈에서 배필이 정해지고, 둘째 꿈에서 혼인의 이미지를 보았다면, 셋째 꿈은 둘째 꿈에서 본 이미지의 가상 연습이다.

화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나이 50줄의 노처녀가 홍두깨를 신랑으로 하여 거행하는 결혼 연습은 '남이 알까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노처녀는 평생을 두고 시집 못간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잠깐 동안의 부끄러운 일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세 개의 꿈을 꿈으로써, 화자는 '노처녀'라는 현재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강잉하여 가만히 헤쳐보니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런 모양 이 거동을
신령은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노처녀가Ⅱ> p.193

화자는 성격이 각각 다른 세 가지 꿈을 꾸면서 미래를 준비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적절한 시기를 찾아 꿈에서 본 바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꿈이 실현되면, '노처녀'라는 현실은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것이

56) 윤지혜, 「노처녀가의 서사 지향적 변모 양상」,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001, p.27.

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천하는 것만 남은 이 시점에서, 화자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히 기도와 기원이다.

노처녀가 꿈을 꾸면서 현실과 다른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였는데도,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꿈의 실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화자는 '노처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비해 온 과정을 신령은 알고 있으리라 믿고 싶은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니' 꿈의 실현을 신이 도와주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2) 부 - <복선화음가>

사사이	생각하니	업난거시	한이로다
분한심사	다시먹고	곰곰싱각	다시하니
김장자	이부자난	근본적	부자런가
슈족이	다성하고	이목구비	온전하니
넉힘써	넉먹으면	그무엇을	부려하리

<복선화음가> p.31

이 가사에서는 지독한 가난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시부모나 남편은 무기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전선에 나설 사람은 시적화자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화자는 꿈을 꾸다. '김장자 이부자는 날적부터 부자인가. 수족이 다 성하니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꿔 보겠다'고 결심하는 부분이 꿈에 해당된다. 이 작품에서는 꿈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약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면은 봉건사회에서 유교사상을 교육받은 여성들의 대부분이 정확한 현실인식은 자각하고 있지만 꿈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은 가난한 현실에 대해 그 이면을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이끈다. 결국, 화자인 이씨부

인은 이 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

3) 꿈의 실현

<노처녀가Ⅱ>에서 노처녀는 쇠침점에서 배필을 알고, 혼인 꿈에서 결혼하는 과정을 보고, 흥두께 놀이에서 사전 연습을 했다. 성격이 다른 세 꿈을 모두 꾸면, 혼인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꿈꾼 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김도령과 의혼하니 첫마디에 되는구나
혼인택일 가까우니 엉덩춤이 절로 난다.

<노처녀가Ⅱ> p.193

여기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가 하는 행동은 '부모들과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쇠침점이 정해진 상대와 꿈속에서 본 대로, 또 흥두께와 연습한대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화자가 하는 행동은 부모형제와의 상의이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의 의논은 수용될 수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또 거부의 주체는 부모일 수도 있고, 김도령일 수도 있다.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는 김도령과의 혼인이 불가능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이리라. 김도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이 노처녀가 자신의 배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리라. 그 두 가지 경우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처녀의 행동은 실패로 끝나고 현실의 갇힌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 화자의 행동은 성공을 거둔다.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만, 김도령과 혼사 문제를 의논하

니, 첫마디에 승낙이 떨어졌으니까.

이처로 말한 후에 혼일이 다다르니
신부의 칠보단장 꿈과 같이 거룩하고
신랑의 사모풍대 더구나 보기 좋다
전안 초례 마친 후 방친영 더욱 좋네
신랑의 동탕함과 신부의 아남함이
차등이 없었으니
천정한 배필인 줄 오늘이야 알겠구나
이렇듯이 쉬운 일을 어찌하여 지완턴고
신방에 금침 펴고 부부 서로 동침하니

<노처녀가Ⅱ> p.194

화자는 현재 상황의 닫힌 원을 벗어나기 위해 꿈을 꾸었고, 꿈을 따라 행동했을 때 드디어 꿈이 실현되었다. 화자와 김도령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 현실 인식의 결과로 드러난 화자의 현재는 '노처녀 - 병신'으로 정리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다. 세 가지 꿈이 보여준 가능성의 세계를 따라 행동이 이루어지면서 꿈이 실현된 이상 화자는 더 이상 '노처녀'가 아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화자는 '노처녀'라는 닫힌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이러한 행동이 성공하여 꿈이 실현되면 화자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자리 잡게 된다. 이 가사에서 새로운 현실은 '부부'이다. 이제 화자는 '부부'가 되어 잘 생긴 신랑과 함께 신방에 들고, 여느 부부들처럼 고락을 함께 한다. 화자는 '노처녀'라는 현실에서 벗어나 '부부'라는 새로운 현실로 이동한다. '노처녀'라는 원과 '부부'라는 원은 내부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노처녀가 부부가 된 것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꾸었고, '

꿈'을 바탕으로 정확한 행동을 해서 성취한 '꿈의 실현'이다. 이런 점 때문에 <노처녀가Ⅱ>의 주인공을 매우 높이 평가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서영숙이다.

즉 그녀는 세계와 맞부딪쳐 승리를 이끌어내는 강인한 존재이다. 시집가지 전 여자는 부모의 처사에 순종해야 한다든지, 혼인은 부귀빈천이나 문벌 등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독립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상이 늘 순종하거나 비탄만 하던 여성 대신에 가사에 등장한 것은 여성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도 그 이전의 효와 열 등의 유교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던 안정된 질서가 이미 심각하게 동요돼 있음을 보여준다.⁵⁷⁾

이제 작품속의 화자는 좌절하고 비탄하고 체념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세계와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다. 바로 이런 점을 서영숙은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영숙은 '꿈'의 역할은 무시하고 있다. <노처녀가Ⅱ>의 화자가 그렇게 능동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꾸고 꿈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마침내 꿈을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꿈의 실현 과정에는 한 가지 면이 더 있다.

평생 소원 다 풀리고 온갖 시름 바히 없네
이전에 있던 새암 이제록 생각한
도리어 춘몽 같고 내가 설마 그러하랴
이제는 기탄 없다 먹은 귀 밝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니 이 아니 희한한가

57) 서영숙, 앞의 책, 2003, p.156-7.

화자의 현실 인식의 결과는 '노처녀'에 '병신'이었다. 그런데 이 가사의 주인공이 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혼 문제였다. 그래서 쇠침점을 통해 신랑감을 알고, 혼인하는 꿈을 꾸고, 흥두깨와 결혼 연습을 한다. 이러한 꿈의 이미지대로 행동하여 김 도령과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김 도령과 결혼한 후에 '먹은 귀 밝아지고 병신 팔 능히 쓰게' 되었다. 결혼 후 육체적 장애가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박씨전』에서 박씨부인이 액땀을 다한 후에 허물을 벗게 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⁵⁸⁾

또한 혼인 문제와 달리 신체 불구의 문제는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체의 문제도 따라서 해결된 것이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화자에게서 중요한 꿈의 실현 과정은 끝났다. 그러나 부차적인 문제 해결이 아직 더 남아 있다.

혼인한지 십삭만에 옥동자를 순산하니
쌍태를 어이 알리 즐겁기 측량없네
개개이 영준이요 문제가 비상하다

화자는 영리한 아들 쌍둥이를 열달 만에 낳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문을 이을 아들 둘을 한꺼번에 얻었다는 것과 그 시기가 어떤 부부보다 빨랐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나정순⁵⁹⁾에 의하면, 당시 여자는 '남편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화자

58) 편집부 편, <박씨전>, 『한국고전문학정선』, 도서출판 나나, 1995.

59) 나정순, 앞의 책, p.325.

에게 생긴 여러 가지 변화 중 득남 소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꿈의 실현 과정에 따라 아들 출산을 배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처음 화자의 현실 인식의 결과는 '노처녀'였지만 꿈이 실현되면서 '부부'가 새로운 현실이 된다. 새로운 현실 역시 둥근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은 '부부'라는 원의 내부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이 원의 내부에는 두 부부와 쌍둥이 아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꿈의 실현으로 얻은 새로운 현실 속에 아직 더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부부의 금슬 좋고 자손이 만당하며
가산이 부요하고 공명이 이음차니
이 아니 무던한가

<노처녀가Ⅱ> p.194

끝부분에 가서 부부의 금슬이 좋고, 자손이 가득하고, 재산도 많고, 공명도 계속되는 등 문제는 아무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결말은 흔히 부부 해로, 자손 만당, 부귀공명이라 부르는 관습적인 행복한 결말이다.

<복선화음가>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꿈의 실현이 그 어떤 규방가사보다 잘 드러난다.

뽕을짜	누익쳐서	오식당사	고은실을
유황갓튼	큰배틀익	필필이	쫄닐적익
쌍원앙	공작이며	기린봉황	범나비라
문치도	찰난하고	슈법도	기이하다

.....
 앞찍이 조흔전답 만홀시구 안밧마구
 노식나귀 썩를츠자 우난소리 십이중문

우리존구 청여장을 둘러집고 황황이
 드리와서 날을보고 하난말삽 이번과거
 즉일창방 너익남편 닉아달이 장원급제
 하엿스니 이른경사 쏘잇나냐

<복선화음가> p.31-33

시적 화자는 결심한 것을 행동에 옮긴다. 그녀가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단 짜기이다. 그녀가 짠 비단은 솜씨가 너무나 훌륭하여 시장에서 좋은 값에 팔린다. 그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전답을 사고, 가축과 세간을 산다. 시집온 지 10년 만에 큰 재산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꿈은 실현되었다. 지나간 과거의 현실은 '가난'이었지만 새로운 현실은 '부유'이다. 이러한 꿈의 실현 과정이 노동이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규방가사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화자가 먼저 돈을 벌어 부자가 된 다음에 남편이 장원급제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벼슬을 함으로써 집안에 부와 명예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규방가사에서 중심인물인 아내가 먼저 치산을 하고, 주변 인물인 남편은 그 다음에 벼슬을 하는 것이다. 치산의 항목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작가의 경제 인식과 여성성에 대한 자부심 등을 비롯한 근대적인 의식이 깔려있다.

위에서 <노처녀가Ⅱ>의 경우, 주인공은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을 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을 행동에 옮겼을 때 '꿈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복선화음가>

역시 화자의 정확한 현실인식이 있었다. 그런 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꿈의 실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노처녀가 II> <복선화음가>의 구조는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2. 꿈의 미실현

규방 가사의 모든 작품들이 이러한 현실인식 - 꿈 - 꿈의 실현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규방 가사에는 '현실 인식 - 꿈'은 있어도, '꿈의 실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조 사대부 여인들에게는 어둡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꿈'은 꾸어도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꿈의 실현이 나타나지 않는 규방 가사의 현실 인식과 꿈을 살펴보고 꿈의 미실현 뒤에는 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규방 가사의 화자의 현실 인식은 매우 일반적인 경우와, 중간인 경우와, 매우 특수한 경우로 구분하여 여러 규방 가사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은 꿈에 관하여 내용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꿈의 내용은 '남자가 되고 싶은 꿈', '신식여자가 되고 싶은 꿈', '꿈', '사후 세계', '전생'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꿈이 좌절된 뒤에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꿈의 내용별로 살펴볼 것이다.

1) 현실 인식

남성을 동경하는 규방 가사는 제법 많다. 조선 시대 말엽의 사회는 사대

부 여성에게 여러 가지 질곡으로 점철된 복합체였다. 남존여비 사상과, 삼종지도의 예법, 열녀 숭상, 재혼 금지, 교육의 불평등 등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족쇄는 여성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다음의 <여자탄식가>는 규방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여인의 괴로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통분하다	우리여즈	시시이	싱각하니
열가지에	흔가지로	흔흔세계	못볼러라
김고길흔	이규중에	여즈들이	씩자하니
빙옥갓흔	이절을	유순키만	주장하고
션당에	늘근부모	지성으로	효도하고
동기간	모든형제	우익하고	화순하여
이리면	홍날세라	저리면	말날식라

누덕종가	종부로서	봉제스도	조심이요
통지중문	호가스에	접빈객도	어렵드라
모시낫키	삼비낫키	명주쯔기	무명쯔기
다담이러	뵈을보니	직임방적	괴롭더라
용정하여	물여드가	정구지임	귀춘더라
밥잘하고	술잘비저	쥬스시에	어렵드라

<여자탄식가> p.108-9

이 작품의 화자에게는 시부모 모시는 일도 어렵고, 시가의 형제들에게 우애 있게 처신하는 일도 어렵고, 봉제사 접빈객도 어렵고, 베 짜는 일도 어렵고, 부엌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아무리 잘해도 흥만 보니, 딱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알고도 못하오니 사람갑세 가든말ㄴ'(60)에 잘

60) 권영철, 앞의 책, 1979, p.106.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녀의 '현실 인식'은 '인간 이하'라는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깊은 규중이라는 현실 세계의 모순이 극에 달하는 순간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꿈'을 꾸게 된다.

삶과 인간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관습 아래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현실 인식'은 <경계사라>에서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특별이

여자에게	두어말	이르고저	하노라
어와녀자	아해들아	이한말	들어보자
서럽고	원통하다	여자된몸	더욱설따
남날 때	낫것만은	남자몸이	못되고서
여자몸이	딴것난고	분하고도	원통하다
한탄한들	무엇하며	서러운들	엇지하랴

<경계사라> p.76-7

이 가사의 현실 인식은 '남녀 차별'이다. 남자들은 교육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아실현을 한다. 그러나 '남자 녀자 동권'⁶¹⁾은 이루어지지 않고 좁은 공간 속에 유폐되어 있는 여자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운명을 한탄하는 남녀 차별은 사실 교육 기회의 박탈이다.

다음 작품의 경우, 현재 상황은 앞의 작품들과 매우 유사하나, 현실 인식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진다.

자이하신	부모님을	일조의	다버리고
옛법도	고이하고	조물도	야속하다

61) 권영철, 앞의 책, 1979, p.77. '애들원통 하다하나 금세로 따져보면 / 남자녀자 동권이라 무엇을 지탄하랴'

죽고조흔	이고향을	겨현이도	이별하고
춘송의	떨어질	입풍선의	날인다시
선봉을떨고	나난다시	구름천을	향한다시
고향스천	송별하고	곳곳이	훗터지며
슈양하난	기력이요		
가을마다	오라오며	화류하든	췌소리라
봄바람	보일손가	이번가면	다시올일
약수철리	방불하다		

<형제소회가> p.138-9

화자는 결혼하게 되어,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 낯선 시택으로 갔다. 그래서 그녀의 현실 인식은 '원부모 원형제'이다. 춘절이 되자 그녀는 두고 온 친정과 부모 형제가 더욱 더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녀의 현실은 시택이고, 부모님이 있는 고향은 현실 저 너머에 있다.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 아래에서 왜곡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의 현실은 가혹했다. 현실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꿈'은 더욱 더 필요해지는 법이다.

이상에서 규방 가사의 현실 인식이 <여자탄식가>의 경우는 '인간 이하'였고, <경계사라>의 경우는 '남녀 차별'이었고, <형제소회가>의 경우는 '원부모 원형제'였다. 이러한 규방 가사들은 전통적인 유교 관습 아래서 시집 살이로 인한 삶의 왜곡을 토로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작품들의 현실 인식을 요약 정리하면 '시집에서의 왜곡된 여성의 삶'이 될 것이다.

세월이 더 흘러가 사회도 변화하면서 근대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식과 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규방 가사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말할것이 무어시오 차히히라 세상사
살펴보니 시대와 풍조가 변천하여
옛과지금 다르도다

<화전가>② p.363

근대의 물결이 흘러가면서, 전통적인 교육 제도나 결혼 제도 등을 문제
시하고, 신식 교육이나 평등한 삶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
런데 근대의 변화가 여성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규방 가사의 작가들에게는 근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지만,
역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가사의 화자는 근대의 변화에
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슬프다 우리어찌
산간벽지 생존하여 산정지 쓸부엌에서
방아짓고 물여다가 음식공지 직분이요
엄동설한 찬바람에 썰래하기 고생이요
장장한일 더운날에 농사바라지 원수로다
적막한 심금중에 무정세월 허송할지
우수사려 지내난일 곱곰안자 생각하니
구곡간장 슬픈회포 경불좌승 못견디네

<화전가>② p.363-4

그녀는 산간벽지의 농촌에서 부엌일과 농사일을 하고 있다. 이 곳 '산간
벽지'는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폐쇄적 공간이라, 근대성의 따
스한 바람은 전혀 불지 않는 곳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지금 새로운 변화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비해, 이 곳은 너무나 한적하고 쓸쓸하다. 이런 곳

에서 그녀가 하는 일은 부엌일과 농사일인데, 근대적인 직업과는 너무나 커다란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현실 인식은 '산간벽지의 구식 시골 여자'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이중적으로 폐쇄된 현실 밖의 새로운 세계를 화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꿈' 밖에 없다. <화전가>②의 현실 인식은 '산간벽지의 구식 시골 여자'였다.

다음에 나오는 <추풍감별곡>의 경우는 현실 인식이 주로 임과의 사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정이	끈치그든	차라리	잇츠그나
아릿따운	자태	그동이	묵개매양
엇지못보아	병이대고	못이지	원슈로다
천슈만한	가득한대	끗끗치	늦기위라
하물면	이런츠평	심해를	못치내니
눈압해	모든그시	전혀다	실음이라
바람에	지든낙엽	풀속개	우던짐생
무심히	덧기대면	관개할바	잇근마넌
유유별한	간절한대	소래소래	슈정이라
구곡개	매친이실음	엇지하며	푸러넬고

<추풍감별곡> p204

이 가사의 화자는 사랑하는 님과 헤어졌다. 그래서 그녀의 '현실 인식'은 '생이별'이다. 님은 떠나갔지만 화자는 님을 잊지 못하고 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쓸쓸함과 서러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임은 현실의 경계선

밖으로 떠나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닫힌 현실의 내부에서 방황하고 있다.

<청춘과부가>의 경우 화자의 현실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가가 금지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한 여인의 인생에서 '부부동락'은 삶의 기본 조건이자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무심하고	가운이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여	귀신조차	사정없다
말잘하고	인물 좋고	활잘쏘고	키도크고
다정하든	정리낭군	사랑하든	우리낭군
무슨나이	그리만히	청산초혼	되단말가
삼생연분	아니런가	사주팔짜	그러한가
기위부부	되엇거던	죽지말고	살았으면
부질업는	이내심사	어느누가	위로하리

<청춘과부가> p.118

그러나 이 가사의 화자에게는 남편이 없다. 재주 많은 호남형의 낭군은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러한 화자의 현실 인식은 '청상과부'로 정리할 수 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독수공방의 외로움에 그녀는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원 내부에는 그녀 홀로 비탄에 잠겨 있다. 죽은 남편은 저승에 있는데 그 곳은 현실 세계의 외부이다.

사랏을때	하는거동	눈에삼삼	그려잇고
죽어갈때	하든말씀	귀에쟁쟁	막혀잇네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얼굴	보고지고
듣고지고	듣고지고	임의소리	듣고지고

원수로다 원수로다 천하사람 많건마는
 아니죽고 살라해도 임생각이 절로난다
 애고답답 내팔자야 가소롭고 가소롭다.
 청산녹수 원앙새야 교태마라 보기싣타
 교태하는 네거동은 내가차마 못보겄다

.....

육백사일 다지낸들 눈물마를 날이업네
 어화답답 내일이야

<청춘과부가> p.120

남편은 죽어서 저승에 가 있지만 그에 대한 그리움은 식을 줄 모른다. 죽은 임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수록 현실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자신의 팔자를 원망해 보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원앙새의 교태를 보면 자신의 딱한 처지와 비교돼 외면하고 만다.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한숨을 쉬어 병이 들 지경이다. 지금의 현실세계에서 화자가 스님이 되어 볼까, 술을 마셔볼까 홀로 방황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부재가 초래한 것이다.

꿈은 현실의 외부를 보여주고, 그것을 실행하여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과부청산가>의 화자의 현실은 <청춘과부가>와 비슷하게 낭군의 이른 죽음이다.

너죽어도 너몬살고 너죽어도 너몬살고
 툇산갓치 미더든이 죽지말고 빅년기약
 그디정 모로고서 날속이고 가신흔빅
 기핀들 발근손양 북망산천 구분길로
 뉘을위에 가단말고 공산야월 정막흔티
 조흔집에 가시난가 한번가고 아이오이

이 가사의 화자 역시 16세에 결혼하여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으니 화자의 현실 인식은 '청춘과부'⁶²⁾이다. 백년해로하자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낭군은 유복자를 남겨두고 북망산천으로 가 버려 님에 대한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현실은 이승이고, 다정한 남편은 저승에 있다. '너 죽어도 너몬살고 너죽어도 너몬살고'라는 탄식은 두 세계 사이의 단절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추풍감별곡>의 경우는 '생이별'이었고, <청춘과부가>와 <과부청산가>의 경우는 '청상과부'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요약 정리하면 '님과의 이별'이 될 것이다.

2) 꿈의 양상

(1) 남자가 되고 싶은 꿈

<여자탄식가>의 현실 인식은 '인간 이하'였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화자는 옆을 보니 남자가 있다. 남성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꿈의 자리로 올라간다.

남즈의	쵸흔팔자	익달코도	부럽더라
칠팔세	빅운글을	십오세	통달하여
낙슈상	청운교에	단계화을	씩거쥐고
문무관	쵸입스로	입신양명	호올적에
교리슈찬	승지당상	참의참판	영돌영을

62) 권영철, 앞의 책, 1979, <과부청산가>, p.214.

계제보고	활유보아	환복도로	드한후에
절나감스	충청감스	남북병스	통제스을
외임으로	홀이스라	호스스치	극진흐니
남자몸이	되엿드면	긴들안이	쥬홀손가
쥬달공명	못흐거든	또한가지	쥬흔일리

<여자탄식가> p.105-6

남자들은 교육을 받아 벼슬을 하고, 고관대작이 되고, 입신양명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 남성들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거나 주색잡기에 몰두할 수 있다. 남자들은 외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반면 현실 세계의 깊은 규중에 갇혀 있는 여자들에게는 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없었고, 억압을 해소해 줄 문화적 장치도 없었으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현실에서의 사회적 인식은 '인간 이하'였다. 그러한 여성들은 '꿈'을 꾸기 위해 그들의 현실 밖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현실의 외부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남성'이었다.

이 가사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런데 현실인식은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현실 이외의 것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화자는 꿈을 꾸다. 꿈속에 보이는 남성의 세계는 화려하고 찬란하다. 꿈속의 남자들은 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사망육척의 좁은 규중에 갇혀 있어 인간성을 박탈당한 화자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인간성 회복을 기도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가 선망하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인간성' 즉 '인간다움'인 것이다.

<여자탄식가>에서 꿈으로 드러나는 남성의 모습은 외부 세계에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규문전회록>에 나타나는 남성의 모습은 조

금 다르다.

좋은행실	많이보고	조흔말삼	만히들어
권선징악	흐난도리	한두가지	아니오니
남자익	동정언행	잘못하여	줄하기와

.....

가련한	여자들은	규중익	싱장하여
이십식	거이도록	선경현전	모라근이
삼강오륜	발근줄과	사단칠정	인난줄을
뉘기드려	알아서며	어되보아	들어서리
아득히	보라숨을	닉혼자	기탄하며

<규문전회록> p.65-6

이 가사에서 화자가 한탄하는 점은 여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사서삼경 같은 경전을 읽을 수 없으며, 삼강오륜이나 사단칠정 같은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 화자는 '꿈'을 꾸다. 꿈에 보이는 남성의 모습은 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 앞의 <여자 탄식가>에선 교육의 결과 누리는 남성의 이득은 벼슬이었지만, 이 규방가사에서는 '인격의 완성'이다.

현실 인식을 통해 얻은 여자의 현재 상황은,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어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종의 '유아성'이다. 현실 인식 속의 여성이 부차적 보조 존재로 전락하는 만큼, 꿈속에 보이는 남성은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을 만끽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꿈속에서 남자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두 규방가사에서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의 여자가 꿈의 남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한 가지 있

다. 야간 수면 중에 꾸는 꿈이다.

여자몸이	죄가되어	유구무언	말뭇히고
구곡간장	타난불얼	속치부만	헛자헛니
스스이	생각헛니	그안이	분할슨가
즈드가	꿈에나마	남자흔변	되어보면

<여자탄식가> p.110

이 가사에서 화자의 경우 남성에 대한 강한 선망으로 인하여 꿈속에서 남자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여자의 현실 인식은 죄 지은 적이 없는 '죄인'이다. '꿈' 속에 남자가 되어 '자유인'으로서 인생의 의미를 마음껏 실현해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꿈 그 자체가 강렬하다기보다는 그와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이 강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남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밤에 꿈속에서는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꿈속에서 남자가 되는 '꿈'은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순간적이고 허망한 일뿐이다. 그래서 남자가 되고 싶은 꿈은 다시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

이리지리	생각한니	여자된몸	분하도다
차세에는	너자이나	후세에	다시나서
녀화위남	하어보새	평생원한	풀어보자

<경계사라> p.78

지금 세상에서는 여자이니 '후세'에 남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윤회론을 근거로 하여 다음 세상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백 순철의 말대로 “극단적이고 이상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⁶³⁾일지도 모

른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인간 이하'라는 것이 현실 인식이었다. 그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 꿈을 꾸었다. 꿈속의 남성은 '인간 - 자율성'이었다. 일반적으로 꿈을 행동에 옮겨 현실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현실과 꿈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다. 그래서 찾은 해결 방법이 후세이다. 그러나 후세에 남자가 되는 것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꿈의 실현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현실 세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후세에 남자가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쌓인 한은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 이하 - 종속성'이라는 지금의 현실에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꿈의 실현 대신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다.

(2) 신식여자가 되고 싶은 꿈

<경계사라>에서의 현실 인식은 '남녀 차별'이었다. 이 규방가사에 드러나는 또 하나의 '꿈'은 '남자 녀자 동권'⁶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별당하는 여자의 '꿈' 속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

사람도리	못하면은	금수와	다를손가
드러보라	남녀아해	또한말	이르노라
고정례법	말라논니	부자간에	친이하고
군신간에	의로하고	부모간에	분별있게
장유간에	차서있게	붕우간에	신용있게

63)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p.74.

64) 권영철, 앞의 책, 1979, p.77.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화락하고	종족간에	화목하고
인아척당	열복하고	인리향단	칭도맞고
이웃간에	싸움말고	행신범백	선행해라
어렵고도	어렵꾸나	사람노릇	어렵꾸나
어렵다	하드라도	행해보면	쉬운이라
수신을	잘하면은	제가도	잘할꺼요
제가를	잘하면은	치국도	잘할꺼요
치국을	잘하면은	평천하도	하난이라
천만사에	민첩하면	일뚝인물	이안인가

<경계사라> p.76

이 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다. 이 가사에서 대비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니다. 둘 다 인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동일하다. 꿈속의 문제의식은, 남녀가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인간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이다. 그 세계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말은 없다. 오로지 인간성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도리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인물을 '일등 인물'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 인간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삼강오륜이라는 '고정예법'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행동 방법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한 유교 윤리가 남녀의 차이를 낳고, 결국엔 남존여비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이 가사에서 삼강오륜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계명이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꿈'은 '남녀평등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꿈속에서 본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일등

인물'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이 인물이 여자일 경우 작가는 그녀를 '선도자'라 부른다.

한탄한들	무엇하며	서러운들	엇지하랴
애들원통	하다하나	금세로	따져보면
남자녀자	동권이라	무엇을	지탄하랴
행신범백	잘하면	남자만	못할손야
선도자가	더해보자	모범일물	더해보세

한지무궁	한탄한들	쓸때업고	허사로다
이것저것	다버리고	사람노릇	하해보자
부모봉양	극진하고	봉제사	접빈객을
칭가유무	성심하고	생남생여	교육하려
여차이무	다하여서	구불절성	찬성듯자
아무려나	행신잘해	어진인물	더해보자

<경계사라> p.77-8

여기에서 화자가 말하는 선도자는, 꿈의 세계에서 본 이상적인 여인상이다. 이 모범적인 여인은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 강한 여자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자가 담당하는 일의 분야를 보면 사우고 · 봉제사 · 접빈객 · 자녀교육 등 여자의 일들을 나열하고 잘 배우라는 것이다. 남녀가 동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그 활동이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동등이니 자유니 하는⁶⁵⁾ 이 꿈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가 근대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체적 삶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65) 권영철, 앞의 책, 1979, '남자여자 동권이라 무엇을 지탄하랴 / 행신범백 잘하면은 남자만 못할손야'

이 가사에 나오는 '꿈'의 여인상으로서의 '일등 인물 - 선도자'의 모습은 이상적인 여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평등 사회에서도 삼강오륜 같은 유교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화전가>의 경우, 꿈이 이상적인 여인상이라는 점은 <경계사라>와 유사하다. <화전가>의 현실 인식은 '산간벽지의 구식 여자'였다. 그렇다면 이 규방 가사의 작가가 현실의 외부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

어찌한 여자들은
 고등학교 출신하에 양머리 곱곽구두
 보석반지 금시계로 꾸하는 자동차와
 달달하는 전차로서 동서남북 왕래하고
 사회상에 출입하여 남여평등 오늘시대
 훌륭한 여자로되

<화전가>② p.363

화자가 꿈속에서 본 것은 '신식 여자'이다. 그런 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식 머리, 신식 구두, 손목시계와 보석 반지 등 신식 복장을 하고 있다. 전차나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근대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시 특유의 활동성과 개방성을 누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산간벽지의 폐쇄성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 모든 근대적 산물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문화가 '인간 평등'이다. 이 부분은 산간벽지를 억누르는 전통 문화의 '남존여비'와 대조를 이룬다.

(3) 꿈

여기서 다루는 '꿈'은 '야간에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보는 영상

의 연속'이라는 좁은 의미의 꿈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꿈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꿈'의 한 종류라고 보아야 한다. <형제소회가>의 현실 인식은 '원부모 원형제'였다. 화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이별하였고 이제는 시집이라는 낯선 산하가 그녀의 현실이다.

한경며똥	줍이든이	혼미중의	익숙한
부모동기	전의모든	친구들과	
좌우로	버려안죽	히소농담	담낙할지
세상식	안일년이	일이업시	즐기다가
원슈갯튼	계명성의	줍을줍간	끼달은이
일중춘몽	영역한다		

<형제소회가> p.140

그녀는 꿈속에서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 재미있고 신나게 놀았다. 그런데 이 '꿈'이 '계명성' 때문에 끝났다는 것은 이 가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모 형제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지냈다는 것은 꿈속에서나마 화자의 소망을 모두 이루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꿈이 현실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면 이 꿈은 그러한 기능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꿈은 완결된 꿈이다. 하지만 모든 꿈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청춘과부가>의 현실 인식은 '청상과부'였다. 사랑하는 임은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녀는 홀로 현실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다. 현실의 외부 세계와 연결시켜 주는 여러 장치들을 여기에서 '꿈'이라 한다.⁶⁶⁾

광대한 천지간에 나갯튼이 쏘잇는가

66) <청춘과부가>에서 '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꿈, 사후 세계, 전생 등 3가지다.

임께서 보낸편지 본듯말듯 손에들고
 가슴우에 언젓드니 편지가 중치안나
 가슴이 답답하다 슬프고 가소롭다
 춘몽일시 분명하다
 꿈아꿈아 또오너라 지금편지 다시보자

<청춘과부가> p.122-3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화자가 꿈속에서 본 것이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편지'라는데 있다. 그 편지 속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상상해 보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자의 남편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다. 다시 말해서 <망부가>⁶⁷⁾ 경우처럼, 피치 못할 일로 나가 있었던 남편이 귀향 소식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사에서 '상사하는 우리낭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⁶⁸⁾ 같은 구절을 보면,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읽지 못한다. 그녀는 꿈을 통해서 남편의 소식을 들으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만다. 꿈속의 편지를 읽지 못했다는 것은, 꿈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현실과 꿈의 거리가 이 가사보다 더 먼 작품이 <과부청산가>다. 이 규방 가사의 현실 인식은 '청상과부'였다.

너그리 못오신고 문득문득 생각나고
 가련하고 답답하다 글잘하고 말잘하든

67) 결혼 후, 부부의 금실은 좋았으나 얼마 후 남편이 가출하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남편을 그리워했다. 9년 만에 남편에게서 편지가 오고, 10년 만에 벼슬을 얻은 남편이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68) 권영철, 앞의 책, 1979, <청춘과부가>, p.119.

아람다운	우리낭군	보고지라	보고지라
다시한번	보고지라	몽중에나	만늬볼가
원낭침도	모르비고	비취금을	취콴덥고
사오경을	바리고서	이리궁글	저리궁글
원춘에	기맹소리	잠들마음	정혀업고
업든심정	절로난다	뉴어신이	잠이오나
안자스니	잠이오나	님도잠도	아이오나

〈과부청산가〉 p.215-6

이 가사는 제목도 내용도 <청춘과부가>와 상당히 유사하다. 화자는 젊은 나이에 재주 많은 호남형의 남편을 잃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죽은 남편에 대한 강렬한 미련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때문에 현실 외부 세계인 저승에 있는 남편과 꿈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한다. 여기까지는 두 가사는 거의 같다. 그런데 이 가사에는 '꿈'을 꾸지 못한다. 꿈속에서 남편과의 재회를 기도하지만 꿈을 꿀 수가 없다.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4) 사후세계

<과부청산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 인식이 '청상과부'였다.

춘초가	무성트라	하물며	인생드리야
죽어진이	사라오리	할말이	무궁하다
엇지한번	다시볼고	황천가서	만나거든
만단정회	다하리라	아사라	그만두어라
생각한들	슬딤업다	마음만	살난하고
잘못하면	늬죽겄다	춘삼월에	지난꽃도

지고시퍼서 지가지난 사시부득 지가지니

<과부청산가> p.219

지금 현실의 화자는 홀로 살아 이승에 있고, 호남형의 남편은 죽어 저승에 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은 남편을 애타게 기다린다. 그러한 현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꿈'이다. 이 가사에서 그러한 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후 세계' 혹은 '내세'이다. 이런 사고를 통해 화자는 죽은 후 '황천에서' 남편과 만나 온갖 회포를 다 풀고자 한다. 이렇게 저승까지도 삶의 테두리에 넣어야 하는 것은 이승의 삶만으로는 삶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승의 삶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저승에서 죽은 남편과의 재회를 꿈꾸게 된다. <청춘과부가>⁶⁹⁾처럼 현실 인식이 유사한 다른 가사의 경우에도 사후 세계에서의 재회를 꿈꾸게 된다.

<추풍감별곡>의 현실 인식은 '생이별'이었다. 화자에게 남은 살아 있으나 그 어디로 가도 만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현실을 변화하게 해 주는 장치는 '꿈' 밖에 없다. 그래서 화자는 꿈을 꾸다.

영명사	차자들어	중다려	무려보자
인간이별	내신분늬	어대탐정	안자신고
넘그런	일편단심을	물친애	발원하야
넘을다시	못볼망지	차라리	죽어젓서
백골은	진토대나	영혼이	놉피날나
넘안직신	난간압패	어루어	보리로다
다시금	생각하니	이듯또한	천수로다

<추풍감별곡> p.205

69) 권영철, 앞의 책, 1979, p.121.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 인제죽어 고히되어 만나보기 하옵소서.'

이 가사에서 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후 세계'이다. 그녀는 죽어서 '영혼'이 되려고 한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현실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자유를 누린다. 죽어 영혼이 되어 화자가 가려고 하는 곳은 '님안직신 난간압패'이다. 이 가사가 독특한 점은 현재 님은 살아서 이승에 있다는 것이다. 영혼이 됨으로써 자유를 얻고 현실의 단단한 장막을 뛰어넘어 현실 너머의 세계로 가고자 한다.

<과부청산가>의 경우, 죽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사후 세계'로 가려하는데 비해, <추풍감별곡>은 살아있는 님을 만나기 위해 '사후 세계'로 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과부청산가>에서 죽음은 저승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지만, <추풍감별곡>에서의 죽음은 자유를 얻게 해 준다.

(5) 전생

<청춘과부가>의 현실 인식은 '청상과부'였다. 이 가사에서 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생'이다.

중을따라	들어가니	광채도	찬란하고
경개도	절승하여	별유천지	여기로다
불전에	배례하고	불당에	참례하니
여러중이	반겨하네		
노승이	못는말이	그대전사	아르시오
염염대답	하는말이	소첩팔짜	박명하여
가군을	영별하고	수회에	골몰하다
전사를	모르리다	그의노승	하는 말이

전생에	부인께서	이절법승	되엇을때
부처께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매
청용사	부처님이	불상히	여겨시사
이곳을	인도하니	청춘에	죄받음은
조금도	실버마소		

<청춘과부가> p.123-4

하루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이리 저리 배회하다가 우연히 어떤 절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어떤 '노승'을 만나게 된다. 화자가 노승에게 '소첩팔짜 박명하여 / 가군을 영별하고 수회에 골물하다 / 전사를 모르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현실 인식의 결과이다. 이 말을 듣고 노승은 그녀에게 '전생'을 밝혀 준다. 전생에 그녀는 이 절의 승려였는데 부처님에게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전생은 현세의 원인이다.

지금의 현실은 '청상과부'인데 그러한 현실을 낳은 과거의 원인이 업보로서의 '죄'라는 것이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이 가사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하여튼 전생의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로 현세의 모순을 낳았다는 것이다. 현실 인식은 '청상과부'라는 현실만 보여준다. 현실을 넘어서, 현실 이전의 것을 보여주는 것은 꿈으로서의 전생이다.

3) 꿈의 미실현

(1) 남자가 되고 싶은 꿈

'꿈'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현실 인식'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

주고, 다음으로는 그 꿈을 바탕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꿈을 통해 현실의 외부를 보고, 행동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래야 '꿈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자탄식가>나 <규문전회록>의 경우는 꿈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가 남자가 되지는 않으니까. 여성이라는 현실을 바꾸려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꿈속에서 본 남성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행동을 통해 꿈을 실현시킬 수 없는 이유는 현실과 꿈의 거리 때문이다. 현실과 꿈의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꿈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현실과 꿈의 거리가 중간적인 경우, 상당한 노력으로 꿈을 성취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 꿈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꿈에 도달할 수 없다. 백순철의 말대로, “남성 전망이 여성의 현실 인식의 한계이거나 소극적인 문제 해결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⁷⁰⁾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의 세계와 대비되는 현실 인식은 오히려 더 처절하고 간절해진다. 다시 말해 꿈속에 남성이 '인간성 -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본만큼 '인간 이하 - 종속성'이라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더욱 예리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성 전망이 나타나는 종류의 작품이 아니라, 전형적인 계녀가들이다. 이런 <계여가>⁷¹⁾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현실 인식'은 있어도, '꿈'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실 인식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투영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것 - 이를테면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이유는 유교적 남성중심주의 교육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그들의 사고가 실천성을 가지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자탄식가>나 <규문전회록>의 경우는 '

70) 백순철, 앞의 논문, p.74.

71) 권영철, 앞의 책, 1979, p.14-20.

꿈'이 드러난다. 여성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예리해질수록 더 많은 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탄식가>에서는 '꿈의 실현' 대신 다른 해법을 시도한다.

몇푸는치	안된남자	가소로고	갓잔터라
아모리	여잔들스	그만남자	양두허리
얼금별금	키큰남자	키만잔득	커먹엇지
알분시런	성민노장	납작납작	말만허티
어리슁슁	문서씨난	거질불도	입술너라
통스훈권	못으르고	스서삼경	어이알며
오원칠원	못짓거던	치부표척	어이허며
제이름도	모르거른	조상세계	어이알며
흔짐닷뭇	모르거른	문서치부	이어허리
이팔청춘	절문씨예	허도세월	무살일고
곰방씨을	엽히끼고	이집저집	당기면서

<여자탄식가> p.110-1

이 가사의 결말 부분에 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남자들은 글을 제대로 못 하여 통사나 사서삼경 같은 책을 읽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당에서 낮잠이나 자면서,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있다는 고발이다. '꿈' 속의 남성은 벼슬을 해 자아실현을 하고, 학문을 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였다.

그런데 끝부분에서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남성들에게 깊은 증오감으로써 읊은'⁷²⁾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어

72) 이선경, 「탄식류 규방가사의 내면 의식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떤 남자들은 이렇고, 어떤 남자들은 저렇다고 보는 것 역시 만족스러운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견해들은 서두의 남성 선행에 기저한 남성성에 대한 확대 평가에 이어, 결말의 남성을 멸시하는 어조를 띤 남성 비판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꿈의 실현'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통제된 행동을 통해서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가사에서 꿈은 남성이다.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다. 현실과 꿈의 세계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현실과 꿈이 이질적이면 현재의 삶은 비극적인 혼란이 되기 쉽다. 그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성 위상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남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남성의 위치는 '꿈'에서 '현실'로 이동한다. 꿈이라는 지고한 이상 세계에 있던 남성을 현실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실 밖에서 현실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꿈'의 기능은 이제는 더 이상 남자의 몫이 아니다.

현실의 내부로 들어온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반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남자는 단점도 장점도 가질 수 있는 평범한 한 인간이 된다. 그런 후에 남자는 꿈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으로서 더 이상 그들을 올려다보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여자탄식가>가 나오는 것과 똑 같은 이유로 <남자탄식가>도 등장한다.

(2) 신식여자가 되고 싶은 꿈

<경계사라>에서는 꿈에서 본 이상적인 여인의 이미지를 모방하려는 화자의 노력은 곳곳에 보인다. 이 규방 가사의 꿈은 이상적인 여성상이므로, 꿈을 행동에 옮기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꿈의 실현을 위한

행동보다 '한탄한들 무엇하며 서러운들 잊지하라'⁷³⁾와 같은 탄식이 곳곳에 나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현실 인식'과 '꿈'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꿈'은 대개 현실에 없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실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가사에 등장하는 여인은 현실에서는 차별 당하는 여자이고, 꿈에서는 자신의 일을 잘 해내는 자부심 강한 여자이다. 여자에 대한 이러한 반대인 현실은 서로 갈등하기 마련이다. 이 두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작품 곳곳에 짙은 탄식과 비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현실 인식의 결과로 얻은 부정적인 여인상이 꿈에서 얻은 이상적인 여인상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과정이 극에 이르면, 이상적인 여인상은 꿈의 세계에서 방출된다. 그 자리를 새로 점령한 것은 남성이고, 그 순간 화자의 꿈은 '다음 세상에서라도 남자가 되는 것'이다.

일통일절	삼가하여	어진사람	되여보라
어천만사	민첩하면	뛰어난	인물이니
문호를	빚내보자	친정에도	영화롭새
이리저리	생각한니	여자된몸	분하도다
차세에는	여자인아	후세에	다시나서
녀화위남	하여보새	평생원한	풀어보자

<경계사라>p.78

<경계사라>에는 두 개의 꿈이 나온다. 하나는 '남자'이고 또 하나는 '이상적인 여자'이다. '현실 인식'에서 커다란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다음 세상에서라도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꿈은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73) 권영철, 앞의 책, 1979, p.77.

주지 못하기 때문에 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그 때 그녀는 '한지무궁 한탄한들 쓸때업고 허사로다'⁷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이 꿈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면서 남녀평등을 이룬다.

이 작품에서는 두 개의 꿈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셈이다. 백순철⁷⁵⁾의 예리한 분석대로, '규범의 철저한 내면화를 기존 질서 속으로 재빨리 편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당위적 현실과, 여성의 자율을 억압하는 제도적 관습적 변화 속에서 주체적 삶을 지켜야 한다는 자아'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산간벽지	생존하야	산정지꼴	부엌에서
방아짓고	물여다가	음식공지	직분이요

.....

적막한	심금중에	무정세월	허송할지
우수사려	지내난일	곰곰안자	생각하니
구곡간장	슬픈회포	경불좌승	못견디네

<화전가>②p.364

<화전가>의 화자인 구식 시골 여자는 꿈속에서 본 신식 여자가 참으로 부러웠다. 신식 여자는 그녀가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적령기가 이미 지나 버린 그녀로서는 교육을 통해서 신식 여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인식과 꿈이 충돌한다. 꿈이 너무 화려하면 현실 속의 화자는 위축되고, '슬픈 회포'⁷⁶⁾가 계속될 수밖에

74) 권영철, 위의 책, p.78.

75) 백순철, 앞의 논문, 2000, p.32.

76) 권영철, 앞의 책, 1979, p.364. '지내난일 곰곰안자 생각하니 / 구곡간장 슬픈회포 경불좌승 못견디네'

에 없다. '지역에서 전통과 근대의 충돌을 경험했던 규방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윤리 의식과 진보적인 삶 사이에서 근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⁷⁷⁾ 전통적인 관습과 결별하고, 근대가 제공하는 진보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작품에서 신식 여자와 산골 여자의 차이를 낳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의 차이도, 반상의 차이도, 남녀의 차이도 아니다. 두 여자를 서로 상반되는 세계로 이끌어간 것은 교육의 유무였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근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근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운동으로 연결된다.

(3) 꿈

춘몽일시 분명하다
 꿈아꿈아 또오너라 지금편지 다시보자
 아서라 다버리고 유실구경 하고보자

<청춘과부가> p.123

<청춘과부가>의 화자는 꿈속에서 죽은 남편의 편지를 받았으나 읽지 못한다. 꿈속의 편지를 읽지 못했다는 것은, 꿈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꿈을 바탕으로 현실은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 정말로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면 '청상과부'라는 현재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현실 속에 있고 꿈의 대상으로서의 남편은 저승에 있으므로, 편지를 통한 두 세계 사이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엔 화자는 유사한 꿈을 다시 꾸어 읽지 못한 편지를 다시 읽고 싶어

77)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41.

한다.

이 가사 역시 현실과 꿈의 거리가 매우 먼 경우에 해당한다.

사오경을	바리고서	이리궁글	저리궁글
원춘에	기맹소리	잠들마음	정혀업고
업든심정	절로난다	뉴어신이	잠이오나
안자스니	잠이오나	님도잠도	아이오나
이늑심사	둘딤업다	이삼경을	바리보고

<과부청산가> p.216

<과부청산가>의 화자는 꿈을 통해,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죽은 남편과 소통해 보려고 한다. 잠이 들지 않아 꿈을 꿀 수 없고 그에 따라 꿈이 거부당하면서 현실의 폐쇄성과 억압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⁷⁸⁾ '꿈'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마저 봉쇄당한 현실이 규방 가사에 나오는 청상과부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시키면, 당대의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현실에서 왜곡된 삶을 강요당한 여성에게는 꿈마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4) 사후세계

춘초가	무성트라	하물며	인생드리야
죽어진이	사라오리	할말이	무궁하다
엇지한번	다시볼꼬	황천가서	만나거든
만단정회	다하리라	아사라	그만두어라

<과부청산가>p.219.

78) 이 가사에서 '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후 세계'이다.

<과부청산가>에서 꿈은 사후 세계에서 낭군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화자는 아마도 자살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사의 화자는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아사라 그만두어라'고 말하면서 삶의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에 대한 권태을⁷⁹⁾의 예리한 분석이 있다. 그에 따르면 남편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남편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가 금지라는 관습법까지 고려한다면 그 시대는 여자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사회였다. <과부청산가>의 화자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결심하면서, '춘삼월에 지난꽃도 / 지고시퍼서 지가지난 / 사시부득 지가지지'⁸⁰⁾라고 말한다. 그 바탕에는 생사에 대한 운명론을 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명론은 세상살이를 운명이라 여기고 의미 있는 행동을 포기하는 사고 방식이고,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거기엔 운명론으로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삶과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 때문에 이 가사의 화자는 남편의 빈 자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럭저럭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다시 말해 이 청상과부의 운명론은 삶의 자포자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강렬한 긍정인 것이다.

<과부청산가>와 유사하게 <추풍감별곡>의 화자의 꿈은 영혼이 되어 떠나가 버린 임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사의 화자 역시 '다시금 생각하니 이도 또한 천수로다'⁸¹⁾ 라고 말하면서 자살보다는 삶을 택한다. 이

79) 권태을, 「규방가사를 통해 본 사별 인식고」, 『영남어문학』 제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p.209.

죽은 목숨보다 산 목숨이 삶다는 애소에서 남편의 요절을 원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0) 권영철, 앞의 책, 1979, p.219.

81) 권영철, 위의 책, p.205.

이유는 이 가사의 끝부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고진	감릭난	어억키	알근마는
명천이	감동하고	귀신이	유애하여
남꼬애	구전물로	월노전	다시매자
소상강	어년날애	고인을	다시만나
봄바람	가얼바람	겨울갓치	마쥬안자
이런일	저런말	삼정해	풍애두고
백연이	다진토록	가이업시	절기다가

<추풍감별곡> p.209

이 가사의 화자가 죽음보다 삶을 택하는 것은, 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대로, 사랑하는 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어찌면 님과 함께 백년해로, 자손만당의 행복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 <추풍감별곡>에서 현실과 꿈의 '거리'가 <과부청산가>의 경우처럼 그렇게 멀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5) 전생

어떤 노승에게 <청춘과부가>의 화자는, 전생에 자신이 승려였고, 부처님에게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전생에	부인께서	이절법승	되엇을때
부처님께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매
청용사	부처님이	불상히	여기시사

.....

어화 내일이야 이제사 아리로다

<청춘과부가> p.124

탄성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가사는 끝난다. 이에 대해 권태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자의 <어화> 속에는 자신의 꿈에서 해방되는, 어쩌면 속죄의 단축에서 우리는 감사의 탄성을 볼 수 있으며, 독자로서는 불행했던 처지가 극적으로 행복으로 끝남에, 경이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82)

권태율은 현재의 고통을 초래한 전생의 업보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행복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가사에서 '이제사 아리로다'라는 구절은 어떤 깨달음을 의미하는가. 청상 과부라는 현실 세계는 미완성의 세계이다. 그녀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은 현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전생이라는 꿈을 동원하여, 인과론의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과부라는 모순 투성이인 현실을 인과론의 세계 속에 통합하면, 현실은 그런 데로 살아갈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전생이라는 꿈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것은 간단히 자신의 삶에 대한 종교·철학적인 이해로 축약된다. 이러한 이해를 얻기 위해 전생이라는 꿈을 동원한 작가의 숨씨가 '경이'로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이 '행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독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반대로 이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순이다.

청상과부라는 삶의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전생의 해명

82) 권태율, 앞의 논문, p.211.

을 통해 인과론의 연결 고리를 던지는 것은 해명되지 않는 삶의 모순을 뚫고 나가려는 시도이다. 어두컴컴한 현재의 삶에 나뵈대로의 빛을 던져보려는 처절한 행동인 것이다. 이를 통해 전생과 현세가 인과론의 연결 고리 속에 통합되면 삶은 그런대로 살아갈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전생이 밝혀지면서 화자는 일종의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순을 온 몸으로 감당하면서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화자에게 불러일으킨다. <청춘과부가>의 화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IV. 문학적 의의

본고에서는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의 틀을 이용하여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꿈의 양상과 실현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작품이 각각의 시대적인 상황에 걸맞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꿈이 나타나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았고, 꿈의 실현이 드러나는 작품은 더욱 미미하였다.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꿈은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대부 여성들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표상이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꿈의 개념에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의 좁은 의미와 함께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이라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확장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좁은 의미의 꿈도 결국은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희망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얻은 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는 단순히 불만이나 신세 한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뛰어 넘고자 하는 강한 자아 실현의 한 방법이었다. 문학은 그 시대의 반영물이다. 그러므로 문학과 시대적인 상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은 가부장제 하에 비인격체로 여겨지면서 억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과 한을 표현한다는 것은 강한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한 강한 정서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이 현실 속에서 삶의 문제와 더불어 생활주변에서 있었던 내적 갈등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대부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을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므로, 가사라는 양식을 통하여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변탄식류 작품에 나타나는 꿈의 양상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꿈'은 현실적 공간을 뛰어넘어 이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희망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이상적인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품들은 대부분이 꿈과 관련된 리얼리티와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

<노처녀가Ⅱ>의 경우, 화자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꿈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과히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처녀는 더 이상 세계의 장벽에 좌절하는 노처녀가 아니다.⁸³⁾ 그러나 노처녀가 혼인을 이루기 전에는 양반사회의 모순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가, 혼인을 통해 양반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고수하려는 이중성⁸⁴⁾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노처녀가Ⅱ>의 화자가 자기의 운명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처녀는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의 결혼제도에 대한 비현실적인 모델을 표상한 것으로 이를 통해 노처녀의 꿈을 형상화하고 있다. 규방가사를 통해 나타난 결혼 운

83) 서영숙, 앞의 책, 1996.

84) 서영숙, 위의 책, 1996.

리관의 새로운 시사, 사랑과 신분적 상승의 쟁취 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강력한 꿈의 표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복선화음가>에 나타나는 꿈은 아주 미약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화자는 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결혼한 지 10년 만에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결과 마침내 꿈을 실현시켰다.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 않는 규방 가사에는 꿈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자가 되고 싶은 꿈, 신식여자가 되고 싶은 꿈,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은 꿈 등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다. 그들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꾸지만, 그러한 꿈은 실현될 수가 없다. 현실과 꿈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꿈은 현실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므로, 실패한 꿈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화자가 꿈을 통해 현실의 외부를 바라봄으로써 현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은 변화하지 않아도 현실 인식에는 변화가 생긴다.

꿈은 이상향의 세계이므로 초현실적인 성격을 지닌다. 작품에 나타나는 꿈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와 무의식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다양한 주제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규방가사에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꿈은 비록 백일몽으로 끝났지만, 꿈과 관련하여 탄식을 넘어선 서정성을 찾을 수 있었다.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꿈들은 미미하여 자칫 간과하고 그냥 넘겨 버리기 쉽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나는 꿈이 양적으로 적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꿈들은 조선조 사대부 여인들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 그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실낱같은 희망이었고 간절

한 소망을 담은 감정의 소극적인 표현이었던 것이다.

규방가사 중에서 계녀가류에 해당하는 작품은 대부분이 정확한 현실인식은 있지만, 꿈이라는 부분은 없거나 극히 미약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들은 단지 현실에서 여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마는데, 이는 화자가 꿈의 초현실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화전가류 작품에서는 서산에 지는 해에 대한 아쉬움,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등의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전가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꿈이 나타나는 작품은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러한 꿈들 또한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축원송도류 작품에서도 가문의 경사나 축일을 맞아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마음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역시 꿈에 대한 부분은 없거나 미약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 외 대부분의 규방가사에서 꿈의 부분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유교적 교육을 받은 조선조 사대부 여성들이 현실 밖 원 외부의 세계를 생각할 심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꿈이 나타나는 작품에서, 그들은 현실을 뛰어 넘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제약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화기 규방가사에서 나타나는 꿈은 뚜렷한 의식을 지닌 작품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신식여자에 대한 동경이나 교육, 남녀평등은 그 시대 여성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화두이다. 개화기의 물결을 타고 나타난 근대적인 의식은 당대 사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규방가사의 꿈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인식은 당대의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정신과 전통적 가치관 사이의 갈등은, 조

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이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을 개척하고자 하는 가치관 변동의 조짐이었던 것이다.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는 그러한 당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 인간의 의식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문학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횡포아래 여성들에 의해 창작된 규방가사는 현실에서의 생활 고백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작가의 순수하고 절실한 창작 동기나 현실에서의 경험이 작가의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칫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규방에서만 살았던 여성들에 의하여 창작된 규방가사의 문학성은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문학은 삶의 체험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오는 결과물이다. 규방가사는 조선조 사대부 여성들이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탄식과 불만을 토로한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식과 불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조선조 사대부 여성들은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한 꿈은 때로는 심리적인 억압을 주고, 때로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서 얻은 생생한 체험을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문학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꿈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적극적인 자아의식을 밝혀냄으로써, 규방 가사의 문학성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인식, 꿈, 꿈의 실현의 과정이 있는 규방가사를 통하여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이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충실히 기록해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이라는 분석 도구를 규방 가사에 적용해 보았다. 먼저 현실과 꿈의 거리에 따라 꿈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현실과 꿈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황이라 꿈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다음은 현실과 꿈의 거리가 너무 먼 상황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꿈의 거리가 중간 정도인데, 능동적인 노력으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경우이다.

II 장에서는 조선조 사대부 여인들이 규방가사에 나타내는 꿈의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계여가>는 여자의 도리를 나열하는 현실인식은 정확하지만 '꿈'이라는 장치가 없다. <사친가> <화전가>에서 나타나는 꿈은 아주 소박한 꿈이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하루해를 아쉬워하며, 서산에 지는 해를 잡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상사곡>은 시적 화자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연히 이루어졌으며, 화자는 단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 들였을 뿐이다.

III 장 1절은 이러한 세 요소가 모두 나오는 <노처녀가II> <복선화음가>를 대상으로 했다. <노처녀가II>의 현실 인식은 '노처녀 - 병신'이다. 노처녀는 정확하게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3가지 꿈을 꾸었다. 쇠침점에서 신랑감을 알아내고, 야간의 꿈을 통해 결혼 장면을 미리 보고, 홍두깨를 신랑 삼아 결혼 연습을 한다. 그리하여 성격이 다른 세 개의 꿈에서 본 대로 행동한다. 그 행동이 부모와의 의논이다. 김도령이 결혼을 승낙하여, 그녀는 부부 - 정상이 된다.

<노처녀가Ⅱ>의 주인공은 현실을 변화시켜 새로운 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적극적으로 타결하는 노처녀는 더 이상 세계의 장벽에 좌절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자 꿈이 실현되었다. 그런데 노처녀에게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능동적인 성격을 해명해 줄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꿈의 성격에 있는 것이다. 이 <노처녀가Ⅱ>의 화자에게는 현실과 꿈이 중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꿈은 현실에 새로운 것을 제공해주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영웅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또 <복선화음가>의 현실인식은 지독한 가난이다. 이 가사의 화자는 시댁의 가난을 인식하고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면과 격식을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게 된다. 화자는 치부의 수단으로 베퉄기를 하며 온갖 일을 한 끝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큰 재산을 모았다. 그녀의 꿈은 실현된 것이다. 또한 이 작품도 현실인식, 꿈, 꿈의 실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가사에서 화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 꿈이 실현되고 있다. 물론 화자의 정확한 현실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지만 그 꿈이 매우 미약하게 형상화되어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

<노처녀가Ⅱ>의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꿈'을 꾸었다. 그 꿈이 실현되면서 그녀의 현실은 '부부 - 정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변화는 관습적인 행복한 결말로서 양반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 대개 한 개인이 꿈의 실현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되면, 이 변화에 의해 사회도 그만큼 변화한다. 즉, 개인의 변화는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처녀가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녀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은 변화해도 사회

는 불변이다. 역사의 변화를 낳지 않는 개인의 변화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Ⅲ장 2절에서는 현실 인식과 꿈은 있지만 '꿈의 실현'이라는 요소가 없는 규방가사를 분석하였다. <여자탄식가>에서는 남자가 꿈이었지만 실현이 불가능했고, <화전가>에서는 신식여자가 꿈이었지만 공부할 나이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과부청산가>에서는 저승에서 남편을 만날 것을 믿지만 자살하지 않는다. <청춘과부가>에는 꿈에 남편의 편지를 받았으나 읽지 못했으며, 현세에서 청상과부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전생의 원인 밝혀지지만 그로 해서 화자에게 일어난 것은 없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꿈의 세계에서 본 것을 적절한 행동으로 옮기면 꿈이 실현되면서 현실도 변화하고, 나아가 사회 역사도 변화한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의 경신을 가져오지 못하는 꿈이라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현실 인식은 현실의 내부를 보여준다면, 꿈은 현실의 외부 세계를 보여준다. 비록 꿈을 실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의 외부를 아는 사람의 현실 인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꿈을 통해 현실의 외부까지 포착하는 현실 인식은 현실의 내부에 갇혀 있는 현실 인식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살펴 본 <여자탄식가>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꿈은 남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여자인 화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꿈이나 내세를 통한 소망충족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꿈의 실현이 성공하지 못하자 화자는 이제 남성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다. 남성을 꿈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리게 되고, 그리하여 남성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보게 된다. 이렇게 실패한 꿈 덕분에 깊어진 현실 인식 속에서 이제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장단점을 함께 가지는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연인들의 꿈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소망의 처절한 몸부림의 표현이었다. 작품에 나타나는 꿈의 양이 적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꿈의 형태는 사대부 여성들에게 꿈이요 희망이었던 것이다. 규방 가사에는 꿈과 관련하여 현실 인식 - 꿈 - 꿈의 실현이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규방 가사의 문학성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조선조 사대부 여성들은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현실에서 받은 심리적 갈등을 규방가사에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그들이 처해있는 모순된 현실에서 생기는 한과 불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자칫 소극적으로 볼 수 있어 문학성의 결여로 오해하기 쉬우나, 꿈과 관련하여 현실인식 - 꿈 - 꿈의 실현의 틀을 적용하여 밝혀냄으로써 문학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신변탄식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꿈을 고찰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작품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꿈과 관련하여 규방가사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권영철,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79.
- 권영철,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 김혜니, 『외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재』, 푸른사상, 2005.
- 나정순, 『한국 고전시가의 분석과 탐색』, 역락, 2000.
-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 이동영, 『가사문학론고』, 부산대학교 출판부, 1987.
- 이부영, 『분석심리학,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1998.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 이동환 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1, 2』, 월인, 2000.
- 임형택 외, 『한국고전시가선』, 창작과 비평사, 1997.
- 서석연,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범우사, 1999.
- 조금주,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론 1, 2』, 지식산업사, 2004.
- 홍문표, 『문학비평론』, 양문각, 1995.

<논문>

- 고순희, 「윤희순의 의병가와 가사」,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나정순 외, 역락, 2002.
- 「<노처녀가 I> 연구」,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개화기 가사를 통해 본 여성담론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 고혜경, 「<덴동어미화전가> 연구」, 『한국언어문학』 35호, 한국언어문학회, 1995.

- 권태을, 「규방가사를 통해 본 사별인식고」, 『영남어문학』 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 권영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신변 탄식류 연구」, 『여성문제 연구』 10호,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0.
- , 「규방가사개설」, 『민족문화논총』 제1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김유정, 「소백산대관록 소재 <화전가> 연구」, 『동국어문론집』 제8집,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1999.
- 김정린, 「사르트르의 이미지 혹은 상상하는 의식」,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김현 외, 문학과 지성사, 1989.
- 김종순, 「규방가사 신변탄식류에 나타난 담론양상과 지향의식」, 『한성어문학』 21집,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2002.
- 나정순, 「전의 이씨 <절명사>에 나타난 죽음과 열의 문제」,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나정순 외, 역락, 2002.
- 박혜숙, 「여성의 시각에서 본 <텐동어미 화전가>」, 『인제논총』 8권 2호, 인제대, 1992.
-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 , 「규방가사의 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I」, 『국어교육학연구』 14집, 국어교육학회, 2002.
- 서영숙,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 『어문연구』 14집, 어문연구학회, 1985.
- , 「서사적 여성가사의 연구」, 『어문연구』 22집, 어문연구학회, 1991.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2.
- 유연석, 「남해윤씨종가소장 규방가사 연구」, 『고시가 연구』, 한국고전시가문학회, 2003.
- 이선애, 「<복선화음가> 연구」, 『여성문제연구』 11호,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
- 이재수, 「여성 자탄가 연구」, 『동양문화연구』 2호, 경북대학교 동양문화

연구소, 1992.

—— 「〈화전가〉 연구」, 『여성문제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2.

이정옥, 「내방가사에 나타난 미의식」, 『문학과 언어』 제2집, 문학과 언어학회, 1981.

하상규, 규방가사 <석별가라>에 대하여」, 『동아어문논집』 창간호, 동아어문학회, 1991.

<학위논문>

김현인, 「내방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이현경, 「계녀가류 내방가사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정숙, 「화전가류 내방가사 연구」,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백기숙,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서영숙, 「서사적 여성 가사의 전개 방식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소진률, 「〈노처녀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안승옥, 「규방가사에 나타난 자아발견의 양상」,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어영하, 「규방가사의 서사 문학적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윤선희, 「〈노처녀가〉 연구」, 신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윤지혜, 「〈노처녀가〉의 서사 지향적 변모 양상」,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경, 「탄식류 규방가사의 내면 의식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 연구」, 대구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 「내방가사의 미학적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이현경,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길자, 「규방가사에 나타난 결함과 현실의 심리적 성격」, 숙명여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주정자, 「〈화전가〉 연구」, 대구 효성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정희, 「규방가사의 민속학적 성격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황영은, 「내방가사 <괴종전>의 서사문학성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